

## 신위의 청나라 여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

- 고증적 성향을 중심으로 -

신 일 권\*\*

### 차 례

- |               |                         |
|---------------|-------------------------|
| 1. 서론         | 3. 청나라 여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 |
| 2. 청조인사들과의 교류 | 1) 옹방강과 청대의 고증적 성향의 시   |
| 1) 여행의 경과와 성과 | 2) 신위의 고증적 성향의 시        |
| 2) 청조인사들과의 교류 |                         |
|               | 4. 결론                   |

### 국문초록

신위(申緯, 1769-1847)의 시에서 나타나는 考證的 성향은 1812년 청나라 여행 이후로 금석학의 대가인 옹방강과 옹수곤 그리고 섭지선 등과  
의 교류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먼저 연경에서 신위와  
옹방강을 비롯한 청조인사들과의 교류와 여행 이후의 교류내용을 자세  
히 밝혔다. 그리고 청나라 여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으로 고증적 성  
향의 시를 살펴보았다.

신위는 ‘조선후기 四家’에 의해 비롯된 청대 시 수용을 계승하였으며,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청나라 연행 이후 옹방강의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以學爲詩’, ‘以考據爲詩’로 칭해지는 옹방강의 고증적 성향의 시를 수용하게 된다. 옹방강의 영향을 받은 신위 또한 ‘以學爲詩’, ‘以考據爲詩’의 창작방법으로 시를 썼으며, 시의 산문화나 시 行間에 自注를 기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식의 특성은 ‘詩言志’나 ‘詩緣情’으로 정의되어온 전통적 시의 경계를 넘어선 것으로 시의 경계를 확대시켰으며, 또한 작가 스스로가 箋注家가 되어 자주를 기재함으로써 자신의 사적 생활도 자유롭게 典故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위가 남긴 시 중에서 연행 이후에 역은 『경수당전고』에는 4069수가 실려 있는데 그 중 상당수의 시가 고증적 성향의 시라는 점에서 신위가 조선후기 고증적 성향의 시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위의 이러한 고증적 성향은 청나라 연행이후 전개될 그의 시뿐만 아니라 학문·서·화·古董遺物 등에 이르기까지 학술문에 전반에 걸쳐 그 바탕을 형성하게 된다.

주제어 : 연행, 옹방강, 청조인사들과의 교류, 고증학, ‘以學爲詩’, ‘以考據爲詩’

## 1. 서론

申緯(1769-1847)는 31세 되던 정조 23년(1799)에 謁聖試 文科 乙科에 급제하고, 1806년 봄부터 1808년까지 평안도 龍岡현령을 지냈다. 1811년 12월부터 다음 해(1812) 3월까지 測候의 명을 받고 書雲觀에 直宿하였고, 이해(1812) 3월에서 7월까지 鞠獄에서 問事郎으로 5개월 동안 있었다. 같은 해(1812) 7월 18일 奏請王世子冊封使의 서장관으로 연경을 다녀오라는 명을 받는다. 연경에서 돌아온 직후에 通政大夫가 되었고, 이

후 1813년 谷山府使, 1817년 承政院 承旨, 1818년 3월 春川府使, 1821년 9월 因山陪從承旨로서 加資되고, 1823년 9월 6일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으며, 1825년 12월 4일 다시 사간원 대사간에 중임 되고, 1828년 8월 29일 강화부 유수가 되었다. 이처럼 신위는 연경을 다녀온 후부터 1830년 5월 6일 효명세자가 졸하고 강화유수를 사직할 때까지 그의 환로는 순탄했다.

신위의 청나라 연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은 이 기간을 주 배경으로 하였다. 신위의 시는 청나라 연행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익히 알려져 있다. 실제로 『警修堂全藁』도 이 시기부터 기록되어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신위의 연경에서의 행적과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覃溪 翁方綱(1733-1818)과 청조인사들과의 교유내용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귀국 후 청조인사들과의 교유 또한 어떻게 지속 되었는가에 따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신위의 연행에서 옹방강을 비롯한 청조인사들과의 교유와 연행 이후의 교유내용을 자세히 밝히고자한다. 이는 신위의 청나라 연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위의 청나라 연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으로 그동안 논의 되지 않았던 考證의 성향의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sup>1)</sup> 다만 이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由蘇入杜’를 學詩의 방향으로 삼았다는 견해는<sup>2)</sup>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1) 이현일은 ‘長篇 題詩의 考證의 性向’에서 ‘이 節에서 다룬 시들은 보통 문인들 같았으면, 산문으로 題跋을 남겼을 터인데, 자하는 굳이 시를 지었다. 그만큼 자신의 창작 능력에 자신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시로 남긴 것에서는 분명히 옹방강의 영향이 감지되지만, 거기 담긴 생각은 바로 위에서 본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하 자신의 것이다.(이현일, 「자하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23면)’라고 하였다. 이현일은 신위의 고증적 성향의 시가 옹방강의 영향으로 인한 연행이후 시의 가장 큰 특징임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

2) 孫八洲, 「申緯詩文學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18면.

## 2. 청조인사들과의 교류

### 1) 연행의 경과와 성과

신위는 순조 12년(1812, 44세) 7월 18일 奏請王世子冊封使의 서장관으로 연경을 다녀오라는 명을 받는다.<sup>3)</sup> 신위는 연경을 다녀오면서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을 남겼다. 序에 ‘壬申년(1812) 가을 7월 중국의 仁宗(1796-1820)에게 왕세자 책봉의 사실을 보고하고자 正使 及 健 李時秀(1745-1821), 副使 吏侍 金銑(1750-?), 書狀官인 나(신위) 세 사람이 같은 날 순조의 왕명을 받았고, 그해 1812년 12월에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에(陳奏兼奏請使의 서장관으로 연경에 갔기 때문에) 당시 사신의 명칭인 ‘奏請使’라는 이름에서 ‘奏請’이란 말을 따서 문집의 제목으로 삼아 「주청행권」이라고 하였다.’<sup>4)</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순조 12년(1812) 7월 18일 진주검주청사 정사 이시수, 부사 김선, 서장관 신위를 불러 보았는데,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기 때문이었다.’<sup>5)</sup>고 한 것으로 보아 신위는 이때 주청왕세자책봉사의 서장관으로 연경으로 출발하였다. 또 ‘순조 12년(1812) 12월 6일 책

孫八洲, 『申緯全集』, 태학사, 1983, 257-296면.

孫八洲, 『申緯와 蘇軾』, 한국동방문화비교연구회, 1997.

김혜숙, 「秋史와 紫霞의 문학적 交遊와 그 影響」, 『대동문화연구』 제2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91, 134-166면.

신일권, 「紫霞 申緯의 題畫詩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55-62면.

차길선, 「자하 신위의 시문학론 소고」,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39면.

3)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8책 32면, ‘순조 12년(1812) 임신) 7월 18일 진주검주청정사(陳奏兼奏請正使) 이시수(李時秀), 부사 김선(金銑), 서장관 신위(申緯)를 불러 보았는데,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기 때문이었다.’

4)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序, ‘壬申秋七月 奏請王世子冊封 正使及健李相公時秀 副使金吏侍銑 書狀官不佞 同日膺命 以同年十二月竣回 仍以使名題集’

5)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8책 32면.

봉주청 정사 이시수에게 廐馬를 하사하고, 부사 김선에게는 가의대부를, 서장관 신위에게는 통정대부를 가자하고, 모두 田結과 노비를 차등 있게 내렸다.’<sup>6)</sup>라는 기록이 있어 이때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연경에서 돌아온 것이다. 따라서 신위는 약 4개월 20여일 만에 연경에서 돌아온 직후, 1812년 12월 6일에 通政大夫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택영의 「자하연보」에 의하면 순조 11년(1811)에 ‘이에 이르러 정3품에 올라 緋玉을 받았다.’라고 하였고, ‘순조 12년(1812) 7월에 진주검주청사 서장관으로 청나라 수도에 다녀왔다.……, 돌아와서는 兵曹參知에 除授되었다.’고 하였으며, 또 김택영의 「紫霞申公傳」에는 ‘순조 11년(1811)에 통정대부로 올랐고, 이듬해 서장관으로서 청나라 북경으로 가서 옹방강 부자와 어울리며 아주 즐거워했다.’<sup>7)</sup>라고 하였으니, 김택영은 신위가 연경에 가기 1년 전에 통정대부로 올랐으며 연경에서 돌아와서는 병조참지에 제수되었는 것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손팔주 역시 「자하연보」<sup>8)</sup>를 작성할 때 김택영의 誤記를 그대로 따랐으며, 게다가 이 해(1812) 12월에 承旨에 被命되었다고 잘못 기록함으로써 후학 연구자들 또한 확인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1812년 7월 18일 진주검주청 정사 이시수, 부사 김선, 서장관 신위가 출발하였다.<sup>9)</sup> 신위의 「주청행권」에 실린 시 제목으로 연행 길을 살펴보면, 吹笛橋 ⇒ 韓希原進士草堂 ⇒ 龍灣館 ⇒ 九連城 ⇒ 會寧嶺 ⇒ 靑石嶺 ⇒ 鷄鳴寺 ⇒ 白塔 ⇒ 太子河 ⇒ 渾河(耶里江) ⇒ 連山關 ⇒ 廣寧 ⇒ 北鎮廟 ⇒ 桃花洞 ⇒ 小凌河 ⇒ 寧遠城(9월 5일) ⇒ 東關驛 ⇒ 涼水河 ⇒ 澄海樓(9월 9일) ⇒ 榛子店 ⇒ 玉田縣 ⇒ 薊州 ⇒ 紫金城 ⇒ 黃華坊(北里) ⇒ 燈市口를 거쳐 연경에 도착하였다.

6)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8책 42면.

7) 金澤榮, 「申緯(紫霞申公傳)」, 『合刊韶濩堂集』 10卷.; 金澤榮 著, 金承龍 편역주, 『송도 인물지』, 현대실학사, 2000년, 215-217면.

8) 손팔주, 『申緯全集』, 태학사, 1983, 297면.

9)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8책 32면.

김택영의 「자하연보」에 의하면 ‘순조 12년 임신(44세) 7월에 진주겸주 청정사 서장관으로 청나라 수도에 다녀왔다. 이보다 먼저 秋史 金正喜가 포의로 연경에 들어갔다가 담계 옹방강에게 서법을 묻고, 곧 이어 그 아들 옹수곤과 같이 지내면서 자하의 재주를 칭송하였다. 이에 공이 옹방강 부자를 보니 부자가 모두 공에게 경도되어 말하기를 “보는 것이 듣던 것보다 더 낫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김택영의 「자하신공전」에는 ‘서장관으로서 청나라 북경으로 가서 옹방강 부자와 어울리며 아주 즐거워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잠시 신위와 추사 김정희의 관계에서 기존 연구들의 오류를 살펴보자. 기존 연구들은 신위의 연경행과 관련하여 모두 추사의 시 <送紫霞入燕十首并序><sup>10)</sup>를 근거로 신위가 추사의 소개와 권유로 옹방강을 처음 알게 되었고, 추사가 신위를 학문적으로 계도하였으며, 심지어 신위가 추사의 제자로 까지 인식하고 있다.<sup>11)</sup> 이는 신위와 추사의 관계에서 종합적인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다.

먼저 추사 김정희의 소개와 권유로 신위가 옹방강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부분을 보자. 신위의 시 <覃溪以今年正月廿七日亡 訃至 以詩悼之> 其三의 注를 보면, ‘처음에 豹翁이 丙午(1786)년에 사신으로 갔다가 담계의 문목을 얻어 보았다. 다시 추사가 庚午년(1810)에 가서 그 알지 못한 것을 더 알았다.’<sup>12)</sup>라고 하여, 신위는 추사 김정희로부터 옹방강을 소개

10) 김정희, 『阮堂先生全集』 卷十, <送紫霞入燕>

11) 김혜숙, 「秋史와 紫霞의 문학적 交遊와 그 影響」, 『대동문화연구』 제2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91, 130, 133, 134면.

李庚秀, 「秋史 金正喜의 清代詩 受容」, 한국한시학회, 1998, 258, 271, 272면.

김춘희, 「秋史 金正喜의 書畫로 본 藝術世界」,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1면.

劉長鏞, 「秋史 金正喜의 書畫思想과 韓國 文人畫에 끼친 影響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58면.

최완수, 「추사와 그 학파」, 『간송문화』 60,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1, 96-97면.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16 : 문벌정치가 나라를 흔들다』, 한길사, 2003, 317면.

12) 申緯, 『警修堂全藁』, 「戊寅錄(1817년 12월-1818년 3월)」, <覃溪以今年正月廿七

받기 24년 전 이미 丙午년(1786)에 사신을 갔던 스승 표암 강세황으로부터 옹방강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자하는 1769년 8월생이고, 추사는 1786년 6월생이니 자하가 17년 연배이다. 신위가 연경을 다녀온 해(1812)는 44세로 과거에 합격한지 13년이 지났으며, 이미 당시의 예림을 주도 하고 있었다. 추사는 이제 막 떠오르는 촉망받는 청년으로<sup>13)</sup>, ‘내가 일찍이 <嵩陽帖>의 詩意를 부채에 본떠 그렸는데 포치가 무척 어려워 자하에게 조언을 받았다.’<sup>14)</sup>라고 하였듯이 신위를 따르고 추앙하고 있었다. 1809년 10월, 당시 24세의 추사는 아직 과거에도 합격하지 못한 청년으로 冬至兼謝恩副使로 임명된 아버지 金魯敬(1766-1837)을 따라 자체 군관으로 연경에 가게 되었다.<sup>15)</sup>

이때 옹방강의 명성은 사행을 통해 조선에 이미 많이 알려진 상태였다. 옹방강은 젊은 추사를 보고 ‘經術文章 海東第一’이라고 칭찬한다.<sup>16)</sup> 이에 추사는 조선에는 신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신위를 소개한 것이다.<sup>17)</sup> 이는 옹수곤이 洪顯周(1793-1865)에게 쓴 편지에

日亡 訃至 以詩悼之> 其三, ‘始約翁丙午使行 獲見覃溪文墨 再於秋史庚午之行 益知其所未知’

13) 申緯, 『警修堂全藁』, 『綸扉錄(1811년 12월-1812년 3월)』, <屬秋史>, ‘昭代春容播正聲 蒐羅揚挖有深情 吾今倦矣論英雋 煮酒青梅屬後生’

14) 김정희, 『阮堂先生全集』 卷十, <送紫霞入燕>, ‘余嘗摹畫嵩陽帖詩意於扇頭 鋪置頗難 爲紫霞所點定’

15) 藤塚鄰 저, 박희영 역, 『추사 김정희의 또 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94면 ; 후지츠키 치카시 저, 윤철규 외 옮김, 『추사 김정희 연구』, 과천문화원, 2009, 140면.

16) 藤塚鄰 저, 박희영 역, 『추사 김정희의 또 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103면. ; 후지츠키 치카시 저, 윤철규 외 옮김, 『추사 김정희 연구』, 과천문화원, 2009, 154면, ‘經術文章 海東第一’

17) 김택영, 「자하연보」, ‘12년 임신(44세) 7월에 陳奏兼奏請使 書狀官으로 청나라 수도에 다녀왔다. 이보다 먼저 완당 김정희가 포의로 연경에 들어갔다가 담계 옹방강에게 서법을 묻고, 곧 이어 그 아들 옹수곤과 같이 지내면서 자하의 재주를 칭송하였다.’

서도 확인된다. ‘선생의 편지를 읽다보니 그 속에서 “자하의 文詞와 翰繪가 조선에서 큰 명성이 있다.”고 했더군요. 이는 秋史 庚兄과 동방의 이름 있는 선비로 나와 일찍부터 안면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칭찬한 것입니다.’<sup>18)</sup>

그리고 2년 후 신위는 서장관으로 연경에 가게 되었다. 이때 추사는 신위에게 ‘자하 선배님, 만리 먼 길을 산과 내를 건너 중국에 들어가니 기이한 경치와 장엄한 광경은 몇 천 만억이 될는지 나는 모르지만 한분 蘇齋 노인을 만나본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sup>19)</sup>라는 송별시를 지어 주었다. 송별시라는 것은 지방으로 벼슬 가거나, 연경으로 사신가는 지인에게 잘 다녀오라는 식의 일종의 인사정도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詩題이다. 추사도 신위를 잘 알고 있는 터이고, 자신이 연경에서 옹방강을 만났을 때 신위를 자랑한적 있었으니 이렇게 송별시를 지어 주었던 것이다. 그 예로 김조순도 이때 신위에게 송별시를 지어주었다.<sup>20)</sup>

또한 눈여겨 볼 것은 연경에서 추사와 신위를 대하는 옹방강의 태도이다. 옹방강은 신위를 보자 “보는 것이 듣던 것보다 더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소식의 문집인 송나라 槧本 『施註蘇詩』와 <天際烏雲帖眞跡(嵩陽帖)><sup>21)</sup>을 보여주면서 신위에게 두 책에 발문을 적어라고 하였다. 이에 신위가 발문을 썼다.<sup>22)</sup> 추사에게는 단

18) 藤塚鄰 저, 박희영 역, 『추사 김정희의 또 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186면. ; 朴徹庠, 『秋史 金正喜의 金石學 研究-歷史考證의 側面을 中心으로-』, 개명대 석사학위논문, 2010, 11면, <옹수곤이 홍현주에게 보낸 편지>, ‘讀先生札中謂紫霞門詞翰繪 有大名於海隅 卽金秋史庚兄與東方知名之士 凡與僕有夙面者皆交口稱譽之’

19) 김정희, 『阮堂先生全集』 卷十, <送紫霞入燕> 竝序, ‘紫霞前輩 涉萬里入中國 瑰景偉觀 吾不如其千萬億 而不如見一蘇齋老人也’

20) 金祖淳, 『楓臯集』, 「詩」, <送三行人紫霞申緯>. ;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翁星原(樹崑) 葉東卿(志詒) 汪載靑(汝瀚) 招集石墨書樓 星原賞余所携楓臯公詩扇 仍用原韻 卽席共賦>, <附送紫霞詞兒赴燕(楓臯)>

21) <천제오운첩>에 관해서는 『紫霞墨藁』(신위 저, 신일권 역주, 도서출판 다운샘, 2011)에 자세히 실려 있다.

지 보여주기만 하였던 것을 신위에게는 발문까지 쓰게 했다. 옹방강이 추사와 신위를 대하는 태도에서 당시 신위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또 신위에게 조문민(조맹부)의 진적을 影搨한 본이 있었는데 이것은 옛날 尙書 姜豹庵(姜世晃)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聽松 成守琛(1493-1564) 선생의 ‘鑑藏本’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庚午년(1810, 42세) 여름에 신위가 진사인 金秋史(金正喜)에게 주었다.<sup>23)</sup> <趙文敏眞迹影摹本>은 청송 성수침 → 표암 강세황 → 자하 신위 → 추사 김정희로 전해진 것이다. 이 서첩의 전해진 과정이 의미심장하다. 즉, 조선후기 서예사에서 신위의 교량적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경오년 당시 홍문관 수찬으로 있던 신위가 17년 후배이자 25세로 아직 진사인 추사에게 서예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신위는 또 깊은 학문적 성숙을 통해 내면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書卷氣’를 강조했다. 그는 <十竹齋譜>를 임서하고 卷後에 ‘담묵과 농묵으로 오색을 갖추었고, 또한 서권기로부터 나온 것이네.’<sup>24)</sup>라고 써서 아들 命衍과 命準에게 보였다. 또 아들 명준에게 ‘書와 畫는 모두 모름지기 서권기가 있어야 한다. 명준의 山水 虛名이 이미 중국에 까지 났으나 더욱 독서를 많이 해서 그 열매를 도와야한다. 열심히 독서해라! 열심히 독서해라!’<sup>25)</sup>라고 하였다. 신위가 추사 김정희보다 약 15년 앞서 ‘서권기’를 강조하였음이 확인된다.<sup>26)</sup>

22)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覃溪老人 出示蕪集 宋槧本 天際烏雲帖眞跡 余旣兩跋之 喜而有述>

23)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二筆(1817년 1월-6월)」, <題趙文敏眞迹影摹本 贈金秋史進士正喜 并序>

24) 申緯, 『警修堂全藁』, 「花徑踏墨六(1822년 6월-1823년 1월)」, <自題臨十竹齋譜卷後> 五首, ‘用墨淺深備五色 又從書卷氣中來’, ‘兒子準行幼好弄翰 時窺一斑 爲書此數語卷尾以付之 奚止寫生指南 可作詩文津逮 小子知之 癸未春正月晦日 碧蘆舫書’

25) 申緯, 『警修堂全藁』, 「祝聖三藁(1836년 1월-4월)」, <余前詩之寫與諸生也 芊綿字一作阡眠 寫諸生和韻者 從綿或從眠 故余更兩押之>, <答命準>, ‘書與畫 皆須有書卷氣 準兒山水虛名 已聞於中國矣 更須多讀書 以副其案也 勉之勉之哉’

그렇다면 신위는 17년 연하인 추사와의 사귀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로 範雲과 何遜의 ‘忘年之交’에 빗대었다. 何遜은 範雲에 비해 20살 적었으나 두 사람은 ‘망년지교’를 맺었다.<sup>27)</sup> 따라서 당시 신위와 추사의 관계는 나이로나 학문과 시·서·화의 깊이로 보나 17년 차이의 선후배이지만 나이를 잊은 사귀어있음을 알 수 있다. 신위는 승정원에 있을 때 자신을 늙은이로, 추사를 꽤기 넘치는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사는 매일 좋은 차를 끓여서 侍童에게 한 사발씩 들려 신위에게 보냈다. 두 사람은 직무가 바쁜 속에서도 시·서·화에 대해 토론하였다.<sup>28)</sup> 오늘날

26) 김정희가 처음으로 ‘書卷氣’를 사용한 기록은 서자 金商佑에게 난을 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온다.(김정희, 『阮堂集』 제2권, 「書牘」, <우아에게 주다(與佑兒)>; 김정희, 『阮堂集』 제7권, 「雜著」, <우아에게 써서 보이다(書示佑兒)>) 서자 金商佑가 1817년에 태어났으니 신위가 처음으로 ‘書卷氣’를 사용한 기록은 1822년으로 이때 김상우는 5살이 된다. 김정희가 김상우에게 준 편지는 내용으로 보아 20세 전후의 장성한 아들에게 준 것으로 신위가 김정희 보다 적어도 15년 정도 먼저 ‘서권기’를 언급한 것이 된다.

27) 申緯, 『警修堂全藁』, 「花徑贖墨五(1822년 1월-5월)」, <西省直廬 每申刻 與秋史談藝 至夜分 得詩凡四首>, ‘何遜原應愛范雲’

28) 이유원, 『임하필기』 제33권, 「華東玉糝編」, <승정원에서 맺은 묵연(墨緣)>, ‘양연(養研, 신위) 노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승정원에 들어갔을 때 스스로 늙은이라 생각되었기에 꽤기 넘치는 소년의 태도를 갖지 못하였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한림(翰林) 김추사(金秋史 김정희)와 취향이 맞아서 날마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이다. 추사는 매일 좋은 차를 끓여서 시동(侍童)에게 한 사발씩 들려 보냈다. 하루는 차를 보내오고 조금 후에 추사도 와서 소매 속에서 금가루를 뿌려 만든 자그마한 전지(箋紙) 한 장을 내놓았는데, 거기에는 시가 적혀 있었다. 내가 ‘그대는 시사(詩思)가 워낙 민묘(敏妙)하니 필시 차 한 번 끓이는 사이에 지었을 것일세.’ 하니, 추사는 웃으면서 ‘과연 화로에 부쳐질하는 사이에 지었다.’고 하였다. 또 추사를 통해서 근래에 찍은 유송담(劉松嵐, 청나라의 劉大寬)의 시집을 보았는데, 책머리에는 담계(覃溪, 옹방강)의 서문이 있었다. 이어서 ‘시는 두보의 법을 구해야 한다’는 등의 토론을 하였으며, 잠시 뒤 나는 내 집에 간직된 쾌설당(快雪堂, 청나라의 馮銓)의 서첩과 담계가 쓴 대련(對聯) 한 점과 고운처사(孤雲處士) 왕진봉(王振鵬)이 그린 <초계고은도(苕溪高隱圖)> 1축(軸)을 꺼내 왔다. 이상 3종의 서화를 추사와 내가 자리를 맞대고 앉아서 세심하게 관정함으로써 승정원에서 맺은 묵연을 입증하였다. 추사는 또 나를 위하여 좋은 종이 한 발 남짓과 짙은 먹물을 내어서 ‘벽로방(碧蘆肪)’이라는 편액을 예

추사가 남긴 학예의 업적들은 당시 학문과 시·서·화에 있어 같은 방향을 추구하면서 한발 앞서갔던 신위와의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사의 시 <송자하입연>을 근거로 신위가 추사의 소개와 권유로 옹방강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과, 추사가 신위를 학문적으로 계도하였으며, 심지어 신위가 추사의 제자로까지 인식되어진 오류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위가 연경에 도착하자 翁星原(樹崑), 葉東卿(志詒), 汪載靑(汝瀚)이 石墨書樓에 초청해 모이도록 했는데, 옹성원이 신위가 가지고 있던 楓臯 金祖淳의 시 <送紫霞詞兄赴燕>을 쓴 부채를 보고 원운에 따라 즉석에서 함께 지었다.<sup>29)</sup> 그리고 성원이 난을 그려주었으며,<sup>30)</sup> 신위는 성원과 ‘금석의 우정’을 맺었다.<sup>31)</sup>

이때 신위는 여행 이후 그의 시·서·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담계 옹방강을 만나게 된다. 옹방강이 왕재정이 그린 신위의 작은 초상화에 시를 썼다.<sup>32)</sup> 신위는 蘇軾이 周昞 장관에게 답한 詩句 중에서 ‘清風五百

---

서로 썼는데, 너무도 훌륭한 글씨였다. 승정원에 있는 늙은 이숙들은 우리 두 사람이 직무가 바쁜 속에서도 서화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생전 처음 본 것처럼 여겼다.” 하였다. 뒤에 내가 비각(祕閣)에 있다가 공(公)을 인하여 승정원에 들어갔는데, 석농(石農) 이종우(李鍾愚)가 오색 냉금지(冷金紙, 금가루를 뿌려 만든 종이)를 펼쳐 놓고 붓을 휘둘러 글씨를 쓰고 있었다. 내가 건장한 걸음으로 다니면서 구경을 하노라니, 접때 하신 양연 노인의 말씀이 왈카 떠올랐다.’

29)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翁星原(樹崑) 葉東卿(志詒) 汪載靑(汝瀚) 招集石墨書樓 星原賞余所携楓臯公詩扇 仍用原韻 卽席共賦>, <附送紫霞詞兄赴燕(楓臯)>

30)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次韻 星原 題 贈畫蘭 二絕句>

31)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續筆(1817년 7월-12월)」, <寄呈覃溪老人> 其一, ‘舊有星原金石諾, ‘星原前以海東碑目一卷 屬余訪碑 追憶此事以高麗國圓應師碑踐言 覃溪所著蘭亭攷崇字三點 引新羅鑿藏寺碑爲證’

32)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次韻翁覃溪 方綱 題 余小照 汪載靑畫>

間’을 가져다 재실의 이름으로 삼고,<sup>33)</sup> 초상화에 다시 시를 써서 담계 노인에게 드렸다.<sup>34)</sup>

담계는 소식의 문집인 송나라 槧本 『施註蘇詩』와 <天際烏雲帖眞跡(嵩陽帖)><sup>35)</sup>을 보여주면서 신위에게 두 책에 발문을 적어라고 하였다. 이에 신위가 두 책에 발문을 썼다.<sup>36)</sup>

신위에게는 십년동안 깊이 간직한 명나라 말기 화가 文敏 董其昌의 친필 서첩이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동기창 친필이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신위는 연경에 갈 때 가지고 가서 옹방강에게 보인다. 옹방강이 살펴보고 진품임을 판정한 발을 적었다.<sup>37)</sup>

신위는 또 安平大君(李瑢, 1418-1453, 호 匪懈堂)의 비단 친필 서첩을 함께 가지고 갔다. 옹방강이 ‘이 서첩은 松雪(조맹부)<sup>38)</sup>의 기량으로 <聖教序><sup>39)</sup>의 筆意를 응용한 것이라고 확고히 말할 수 있다.’라고 발을 적었다.<sup>40)</sup>

그리고 담계가 신위에게 ‘外似放縱 內索嚴密(밖은 방종한 듯, 안은 엄

33)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次韻翁覃溪 方綱 題余小照 汪載青畫>, <附原韻(覃溪)>, ‘君取坡公答周長官詩清風五百間 以顏其齋故云’

34)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再題小照呈覃溪老人>

35) <天際烏雲帖眞跡(嵩陽帖)>, 소식이 錢塘에서 蔡襄의 <夢中詩> 목적을 보고 감흥 받아 白粉箋紙에 붓으로 써내려 간 서첩이다. 帖名 <천제오운첩>은 <몽중시>의 첫 구절에서 따왔다. 소식 진적본 <천제오운첩>은 후에 옹방강의 石墨書樓에 들어갔다. 옹방강은 이 서첩을 고증하여 『天際烏雲帖攷』를 내놓았다.

36)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覃溪老人 出示蕪集宋槧本 天際烏雲帖眞跡 余旣兩跋之 喜而有述>

37)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題 董文敏眞蹟帖 覃溪審定題跋後>

38) 趙孟頫(1254-1322), 字는 子昂이고, 號는 松雪이다.

39) <聖教序>, 王羲之의 行體法帖. 唐나라 僧 懷仁이 高宗의 명을 받고 672년 왕희지의 行서 筆跡 중에서 集字 하여 세운 <大唐三聖教序碑>의 서체.

40)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覃溪又跋余所携安平大君絹本眞蹟曰 此能以松雪手腕 運聖教序筆意者 眞確論也 系以二絕句>

밀하게)'라는 8자 글씨 쓰는 비결을 써 주었다.<sup>41)</sup>

연경에 머무르는 동안에 신위는 東樓門 안에서 배를 띄워 同樂園에 들어가 잔치 자리에 나아갔다.<sup>42)</sup> 蒙王 貝勒 丹巴多爾濟가 신위에게 부채에 시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잔치 자리에서 丹貝勒이 신위에게 후하게 대했는데, 늘 음식을 나누어 주고 양고기를 잘라서 연이어 먹으라고 권하였다. 잔치가 끝나자 '海澱別墅'로 신위를 초대하여 본당 뒤의 별당으로 안내 하였다. 앞에는 歌舞가 한창인 루가 있는데 편액에 <鏡天花海>라고 쓰여 있었다. 신위를 위해 演劇을 하였는데 《桃花扇》에 이르자 音調가 슬프고 아름다워 사람을 감동 시켰다.<sup>43)</sup>

이때 朱野雲(鶴年, 1764-1844)<sup>44)</sup>이 신위를 찾아왔다. 숙소에서 즉석에 붓을 달려 주야운의 방문에 사례하였다. 신위가 晩年에 주야운과 사귀었는데 출발 날짜가 급하게 다가왔다. 주야운이 신위를 늦게 만난 것을 몹시 아쉬워하였는데, 이 때문에 필담을 하던 중에 초서로 李商隱(813-858)의 '晩年에 한없이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다만 황혼이 가까운 것이 한이로구나(夕陽無限好 只是近黃昏)'라는 詩句를 썼다. 주야운이 그 글 위에 손으로 동그라미 몇 개를 그렸는데 눈물이 떨어져서 종이를 적셨다.<sup>45)</sup>

동락원 연회자리에서 이별한 다음 尙書 金蘭畦(光悌, 1747-1812)<sup>46)</sup>가

41)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出柵 次斗室扇頭韻>, '覃溪授余外似放縱 內窠嚴密八字書訣'

42)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東樓門內泛舟 入同樂園 趁宴筵作>

43)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貝勒丹巴多爾濟求余扇詩>, '宴筵 丹貝勒向余款厚 每克食之頒 手剖羊 調略以勸之 及宴罷 邀過海澱別墅 引至後堂 前有歌舞之樓 榜曰鏡天花海 爲余演劇 至桃花扇 音調悲豔動人'

44) 朱野雲(1764-1844), 이름은 鶴年이고, 호는 野雲山人이며, 江蘇省 泰州사람이다.

45)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館中卽席走筆 謝朱野雲(鶴年)見訪 兼致副懷金蘭畦尙書(光悌)>, '僕晚交野雲 而行期促近 故談草寫 李義山夕陽無限好 只是近黃昏之句 野雲連手加圈 泣下沾紙'

46) 金光悌(1747-1812), 字는 汝恭이고, 號는 蘭畦이며, 內閣侍讀學士, 刑部尙書

멀리서 신위를 보고 돌아오면서 주야운에게 말하기를 “조선 서장관은 내가 용모를 멀리서 바라보니 반드시 文士이다. 만나서 이야기해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였다. 이에 주야운을 보내 소개하고 서로 만나보았는데 또한 동락원 가까이에 있는 막내아들을 시켜 名帖을 먼저 보내주었다.<sup>47)</sup>

신위는 연경에 머무는 동안에 翁方綱, 翁星原(樹崑), 葉東卿(志詵), 汪載靑(汝瀚), 蒙王 貝勒 丹巴多爾濟, 朱野雲(鶴年), 尙書 金蘭畦(光悌)와 교류하였다. 돌아오는 길은 通州 ⇒ 段家嶺 ⇒ 盧家莊 ⇒ 山海關 ⇒ 杏山 ⇒ 十三山 ⇒ 瀋陽 ⇒ 遼東 ⇒ 柵門 ⇒ 龍灣館을 거쳐 순조 12년(1812) 12월 6일 도착하였다.<sup>48)</sup> 약 4개월 20일 만에 진주겸주청사 서장관으로 청나라 수도 연경에 다녀왔다.

## 2) 청조인사들과의 교류

신위가 연경을 다녀오면서 쓴 「주청행권」에 기록된 청조인사는 覃溪 翁方綱, 星原 翁樹崑, 東卿 葉志詵, 載靑 汪汝瀚, 蒙王 貝勒 丹巴多爾濟, 野雲 朱鶴年, 蘭畦 金光悌이고, 「주청행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문집에 자주 나오며 가까이 지낸 청조인사는 蘭雪 吳嵩梁, 秋吟 蔣惟, 金粟 錢林이며, 다음으로 露葵 熊昂碧, 雲伯 陳文述, 茶農 張深, 鄧石如의 아들 鄧守之, 菊人 周孝廉<sup>49)</sup>, 鶴田 端木國瑚, 曉山 關藻, 潤生, 卯橋

를 역임하였다.

47) 申緯, 『警修堂全藁』, 「奏請行卷(1812년 7월-1813년 2월)」, <館中卽席走筆 謝朱野雲(鶴年)見訪 兼致鄙懷金蘭畦尙書(光悌)>, ‘蘭畦尙書於同樂園宴筵班次 遙見不佞 歸語野雲曰 朝鮮書狀官 吾望見其眉目 必是文士 恨未接話 乃送野雲紹介相見 且令季子近園先送名帖’

48)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8책 42면, ‘순조 12년(1812) 임신 12월 6일 책봉주청정사(冊封奏請正使) 이시수(李時秀)에게 구마(廐馬)를 하사하고, 부사 김선(金銑)에게는 가의대부(加義大夫)를, 서장관 신위(申緯)에게는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차하고, 모두 전결(田結)과 노비를 차등 있게 내렸다.’

49) 申緯, 『警修堂全藁』, 「覆甌集十(1843년 4월-1843년 12월)」, <追和熊雲客 昂碧

丁泰, 石士 陳用光<sup>50)</sup> 등이다. 그 외 羽可 郭儀霄<sup>51)</sup>, 樹齋 鬱滋, 至堂 艾暢<sup>52)</sup>, 霽嵐 周誠之(澹隱山人) 등과도 교류하였다.<sup>53)</sup>

신위는 연경에서 돌아온 후에도 주로 청나라로 가는 사신을 통해 서신으로 교류하였다. 신위가 연경에서 청조인사들과 직접 만나 교류한 내용은 앞에서 이미 밝혔으므로 이하는 연경에서 돌아온 후의 교류 내용이다.

① 覃溪 翁方綱

1813년 10월에 覃溪 翁方綱(1733-1818)은 신위의 墨竹 그림을 보고 <紫霞學士墨竹>을 지어 ‘맑은 바람 오백 칸을 깨끗이 쓸었도다.(淨掃清風五百間)<sup>54)</sup>’라고 하였다. 1814년 정월 초이렛날 담계의 아들 웅성원이 한 본을 임화하였다. 신위는 1816년에 담계의 <자하학사묵죽>시에 미루어 화답하였다. 신위가 이 시를 쓸 때 성원은 이미 1815년에 즐겼다. 그래서 신위가 성원의 부음을 듣고 슬퍼하면서 쓴 시가 되었다.

1817년 신위가 담계에게 시를 지어 부쳤다. 성원이 전에 『海東碑目』한 권 때문에 신위에게 비를 찾아보기를 부탁한 일로 <高麗國圓應師碑>를 찾아보았고, 담계가 지은 『蘇米齋蘭亭考』<sup>55)</sup>에서 말한 ‘崇’자의 세 점으

蔣秋吟先生齋 獲觀朝鮮申紫霞侍郎詩 因題其後 四絕句> , <附 原韻(熊雲客)> 其三, ‘君與菊人周孝廉至交頃 菊人已南遊’

50) 陳用光(1768-1835), 字는 碩士, 實思이고, 호는 白石, 瘦石이며, 江西 新城 사람이다.

51) 郭儀霄(1775-?), 字는 羽可이고, 江西 永丰人이다.

52) 艾暢(1787-?), 字는 玉東이고, 호는 至堂이며, 江西 東鄉(今屬江西撫州) 사람이다.

53) 申緯, 『警修堂全藁』, 『北禪院續藁四(1831년 7월-11월)』, <經山閣學 充賀至使入燕索詩 故賦此爲別>, ‘僕所締交上國名彥 如翁文達, 橋梓, 金蘭畦尙書, 錢金粟, 蔣秋吟諸公 次第淪謝 吳蘭雪, 周菊人 皆官遊四方 今略無餘者’; 申緯, 『警修堂全藁』, 『養硯山房四(1832년 윤9월-10월)』, <題蕩船黃葉懷人圖> 참조.

54)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拾草(1816년 5월-12월)』, <追和覃溪題紫霞學士墨竹四首>, <附原韻(覃溪)>, ‘覃溪原詩題在畫幀 星原手臨一本’, ‘癸酉十月題 甲戌人日臨’

로 신라 <鑿藏寺碑><sup>56)</sup>를 증험하였다.<sup>57)</sup> 이때 우리나라의 풍물을 알리고자 웅방강에게 고려 궁궐터인 滿月臺에서 얻은 고려자기 한 점과 금비녀를 보내면서,<sup>58)</sup> 웅방강의 문집인 『復初齋集』과 웅방강이 소식의 시를 補注한 『補注蘇詩』를 보내줄 것을 청하였다.<sup>59)</sup>

그리고 1년 뒤인 1818년 신위가 춘천 부사로 있을 때, 平山 申氏의 시조인 壯節公 申崇謙(877-927)의 太師墓에 가을 제사를 드렸는데, 『복초

55) 이유원, 『임하필기』제34권, 『華東玉糝編』, <동경(東京)의 고적(古蹟)에 대한 고찰>, ‘홍이계가 어떤 맷돌의 결이 보통 돌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워서 그 복부를 살펴보았더니, 바로 절반이 잘려진 옛 비였다. 기술자를 시켜서 탁본을 해 왔더니, 과연 무장사비였다. 그 글을 상고해 보니 신라 때 한림(翰林) 김육진(金陸珍)이 쓴 것이었다. 그런데 그 성만 보고 김생이 쓴 것이라고 잘못 말한 것이다.’; 이유원, 『임하필기』제34권, 『華東玉糝編』, <정무본(定武本) 난정첩(蘭亭帖)에 대한 고찰>, ‘웅담계(翁覃溪)의 <소미제난정고(蘇米齋蘭亭考)>에 이르기를, “송(崇) 자는 정무본(定武本)에 세 점(點)이 다 나타난 것이 가장 으뜸간다. 구본(舊本)에도 송 자가 실려 있는데, 산(山) 자 아래에 세 작은 점이 온전한 경우로는, 이를테면 조문민(趙文敏)이 얻은 독고본(獨孤本), 조자고(趙子固)의 낙수본(落水本), 월주석씨본(越州石氏本), 천목산방본(天目山房本)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였다. 상고해 보건대, 신라의 무장사비(鑿藏寺碑)는 중국의 상감가(賞鑑家)들이 모두 왕우군(王右軍)의 정수를 깊이 얻은 것이라고 일컫는데, 그 안에 있는 송(崇) 자는 산(山) 자 아래에 세 점이 또한 모두 온전하다 한다. 송 자는 다른 본에는 세 점을 찍지 않았다. ; 韓致瀛, 『海東釋史』제46권, 『藝文志』5, <碑刻>, ‘<蘇米齋蘭亭考>에 이르기를, “고려에서 탁본을 뜬 당나라 정원(貞元) 16년(800) 신라의 무장사비(鑿藏寺碑)와 회인대아(懷仁大雅)가 찬집한 왕우군(王右軍)의 글자를 보면, 송(崇) 자 아래에 세 점이 모두 완전하다.” 하였다.’

56) 鑿藏寺, 경상북도 경주시 동쪽 30리 암곡동에 있다. <鑿藏寺碑>는 이 곳 미타상을 조성한 인연을 적은 비문으로 보물 제 125호이다. 비신은 왕희지 글씨를 集刻했으며, 신라 수대남령(守大南令) 김육진(金陸珍)이 撰했다. 그 탁본이 웅방강에게 전해졌다.

57)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續筆(1817년 7월-12월)』, <寄呈覃溪老人> 其一, ‘星原前以海東碑目一卷 屬余訪碑 追憶此事以高麗國圓應師碑踐言 覃溪所著蘭亭攷崇字三點 引新羅鑿藏寺碑爲證’

58)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續筆(1817년 7월-12월)』, <寄呈覃溪老人> 其二, ‘高麗甕一口 宮墟滿月臺所得也 粉青花朶出格古’

59)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續筆(1817년 7월-12월)』, <寄呈覃溪老人> 其三

재집』의 운자를 사용하여 시를 지었다.<sup>60)</sup>고 한 것으로 보아 신위는 이때 옹방강이 『동과집』을 복간한다는 의미로 붙인 『복초재집』을 이미 갖고 있었다. 작년에 신위의 부탁을 받고 옹방강이 『복초재집』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위가 소장한 『복초재집』12책은 편년 己巳(1809)에서 그쳤다. 이 후 續集은 없었다. 추사가 甲戌(1814)에서 丁丑(1817)까지를 빌려주었는데 庚午(1810)에서 癸酉(1813)까지가 없었다.<sup>61)</sup> 竹垞 徐眉淳이 己巳(1809)에서 甲戌(1814)까지를 주었다.<sup>62)</sup> 따라서 신위는 12책으로 편년 己巳(1809)까지의 원집은 이미 소장하고 있었고, 추사와 죽타의 도움으로 庚午(1810)에서 丁丑(1817)까지의 속집을 모두 갖추게 된 셈이다.<sup>63)</sup> 이렇게 하여 1835년 신위는 10여 년간 손수 『복초재집』을 選本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후 ‘精選’ 二字 작은 印을 찍어 마침내 책을 완성하였다.<sup>64)</sup> 李裕元은 <『복초재집』의 選本 두 가지>에서 ‘추사는 대궐

- 60) 申緯, 『警修堂全藁』, 「貂錄二(1818년 7월-12월)」, <太師慕秋享 恭述用復初齋集韻>
- 61) 申緯, 『警修堂全藁』, 「山房紀恩集二(1834년 7월-9월)」, <余有復初集選本之役 已在十年前 始則選止於七律 而近漸並及古今諸體 敝齋所蓄此集 只十二冊 編年止乎己巳 自後續刻則無有也 秋史隔江 瓚借續刻一冊 助余選役 而考其編年 乃在甲戌 則庚午至癸酉 又必有前一卷矣 題此詩 要秋史之並借也>, ‘此卷始自甲戌 而余奉使在壬申 則屬余篇什 當在此卷之前一編矣’
- 62) 申緯, 『警修堂全藁』, 「祝聖二藁(1835년 5월-12월)」, <余選復初齋詩之役 已過十年 迄未告竣 竹垞進士贈是集原刊合續刻重裝本 而前闕陸序 後缺儷笙續刻甲戌至丁丑之作 此亦未可謂完本也 但題余小照之什 宛在續刻中 差幸掛名其間 所可恨者 題拙畫墨竹詩則竟逸而不見耳 書此以示竹垞>
- 63) 申緯, 『警修堂全藁』, 「祝聖二藁(1835년 5월-12월)」, <余選復初齋詩之役 已過十年 迄未告竣 竹垞進士贈是集原刊合續刻重裝本 而前闕陸序 後缺儷笙續刻甲戌至丁丑之作 此亦未可謂完本也 但題余小照之什 宛在續刻中 差幸掛名其間 所可恨者 題拙畫墨竹詩則竟逸而不見耳 書此以示竹垞>, ‘儷笙續刻之去年秋史瓚借者 是甲戌至丁丑詩也 今竹垞所贈者 則己巳至甲戌詩也 僅合爲續刻之全也’
- 64) 申緯, 『警修堂全藁』, 「祝聖二藁(1835년 5월-12월)」, <余選復初齋詩之役 已過十年 迄未告竣 竹垞進士贈是集原刊合續刻重裝本 而前闕陸序 後缺儷笙續刻甲戌至丁丑之作 此亦未可謂完本也 但題余小照之什 宛在續刻中 差幸掛名其間 所可恨者 題拙畫墨竹詩則竟逸而不見耳 書此以示竹垞>, ‘余以舊藏原本殊墨精選者 回贈竹垞 是余十餘年間手蹟所在 而取後以精選二字小印 逐篇鈐之’

의 直所에 있을 때 菖蒲節(음력 5월 5일)부터 『복초재집』을 교정하기 시작해서 觀蓮節(음력 6월 24일)에 이르러서 끝냈는데, 다만 칠언 율시 100수를 뽑았을 뿐이다. 신자하는 각체를 모두 뽑되 여러 번 바꾸고 나서야 그만두었다. 이 두 본이 세상에 나돈다.<sup>65)</sup>라고 하였다.

옹방강이 1818년 1월 27일 졸하였다. 부고가 이르러 시를 지어 애도하였다.<sup>66)</sup>

## ② 星原 翁樹崑

신위가 연경에서 돌아온 후 星原 翁樹崑(1786-1815, 자 星原, 紅豆)은 甲戌년(1814) 8월 11일 향을 사르고 차를 올려 멀리서 자하 생일을 축하하고 <자하 초상화>에 시를 써서 신위에게 두루마리로 보냈다.<sup>67)</sup>

1814년 12월 19일 신위가 상산부사 재직 때 松雪 趙孟頫(1254-1322)의 <東坡像>을 임화하였는데, 명준이 또 한 본을 임화하였다. 성원이 보내준 蜀江子石 23개와 신계 紗羅江의 돌 40개를 구리로 만든 물동이에 담그고 두 <동파상>을 올리고 동파생일을 기념하였다. 사라강은 신계현 40리에 있다.<sup>68)</sup> <東坡笠屐像><sup>69)</sup>은 추사가 담계에게 얻은 것인데,

65) 이유원, 『임하필기』 제34권, 「華東玉糝編」, <『復初齋集』의 選本 두 가지>

66) 申緯, 『警修堂全藁』, 「戊寅錄(1817년 12월-1818년 3월)」, <覃溪以今年正月廿七日亡 訃至 以詩悼之>

67) 申緯, 『警修堂全藁』, 「北禪院續藁四(1831년 7월-11월)」, <偶檢舊篋 得星原甲戌八月十一日 焚香薦茗 遙祝紫霞生辰 因題紫霞小照詩立軸 感次原韻 題其後>

68) 申緯, 『警修堂全藁』, 「鳴琴采藥之軒存藁(1814년 1월-12월)」, <十二月十九日 重摹趙松雪畫東坡遺像 仍以星原舊贈蜀石二十三枚 新溪紗羅江石四十枚 沉水銅盆作東坡生日有詩(紗羅江在新溪縣西十里)>, 「東坡笠屐像 秋史得於覃溪 今在秋史處」; 申緯, 『警修堂全藁』, 「貂錄二(1818년 7월-12월)」, <臘月廿四日 用天際烏雲帖韻 追補坡公生日 書示命準>, 「甲戌 余在象山 手臨松雪本坡公像 命準又摹一本 取紅豆所贈蜀江子石供二像 以爲公生日」

69) 옹방강은 소동파의 <笠屐圖> 3점을 구해서 자신의 서재인 寶蘇齋에 봉안하고 해마다 동파의 생일에 <天際烏雲帖>, 「宋槩蘇詩施顧注」를 진설하고 여러 동지들과 제사를 지냈다. 옹방강이 소장하고 있는 <蘇文忠公笠屐圖>는 1518년 6월 15일 唐寅이 그린 것이다.

지금 추사가 소장하고 있다. 세상에서 담계 옹방강을 동파 소식의 후신이라고 칭한다. 옹방강은 일찍이 <天際烏雲帖>의 眞迹을 얻은 다음 그 서실의 편액을 ‘蘇齋’로 써서 달았고, ‘蘇齋墨緣’이란 인장도 새겨서 가졌다. 옹성원은 그 거처에 ‘星秋霞碧之齋’라는 이름을 써 붙여 항상 잊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였으니, 유익한 세 벗의 도움을 자기 한 몸에 곁하고자 한 것이다. 또 이것으로 인장까지 새겼다. ‘星’은 星原이고, ‘秋’는 秋史이고, ‘霞’는 紫霞이고, ‘碧’은 貞碧으로 柳最寬인데 역시 글씨를 잘 쓴 사람이다.<sup>70)</sup>

1815년 옹성원이 졸하였다.<sup>71)</sup> 옹성원이 졸한 후인 1817년 신위는 성원이 전에 『海東碑目』한 권 때문에 신위에게 碑를 찾아보기를 부탁한 일로 <高麗國圓應師碑>를 찾아보았고, 담계가 지은 『蘇米齋蘭亭考』에 말한 ‘崇’자의 세 점으로 신라 <鑿藏寺碑>를 증험하였다.<sup>72)</sup> 이보다 앞서 옹수곤이 신위에게 虞世南(558-638)<sup>73)</sup>의 <孔子廟堂碑><sup>74)</sup> 온전한 拓本

70) 이유원, 『林下筆記』제33권, 『華東玉糝編』, <翁方綱의 蘇齋라는 호칭>

71)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拾草(1816년 5월-12월)』, <追和覃溪題紫霞學士墨竹四首> 其四.

72)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續筆(1817년 7월-12월)』, <寄呈覃溪老人> 其一, ‘舊有星原金石諾, 星原前以海東碑目一卷 屬余訪碑 追憶此事以高麗國圓應師碑踐言覃溪所著蘭亭攷崇字三點 引新羅鑿藏寺碑爲證’

73) 虞世南(558-638), 자는 伯施이고, 越州 餘姚(지금의 浙江省 餘姚) 사람으로 당나라의 걸출한 서예가이자 문학가다. 陳, 隋, 唐 3대를 살면서 당나라에 들어온 후 이세민에게 중용되어 弘文館十八學士의 한 사람이 되었다. 벼슬은 光祿大夫와 秘書監을 지냈고, 永興縣에 봉해졌기 때문에 ‘虞秘監’ 또는 ‘虞永興’이라 불렸다. 전해지는 작품으로는 <孔子廟堂碑>와 <汝南公主墓誌銘>이 있다.

74) <孔子廟堂碑>는 당나라 무덕(武德) 9년(626)에 시작해 정관(貞觀, 627-649) 연간에 완성했다. 우세남(虞世南)이 글을 짓고 해서로 썼다. 비가 완성된 후에 이를 감상하려는 사람의 수레가 끊이지 않았고, 탁본함에 쉬는 날이 없었지만 잘못하여 불이 훼손됐다. 북송 때에 원각의 탁본은 이미 얻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해 黃庭堅은 『山谷集』에서 ‘우세남이 쓴 <공자묘당비>는 정관 연간에 새긴 것으로 천량의 황금으로 구입했다. 우세남의 글씨는 항상 중간 획이 배부르고, 말년에 더욱 묘해졌다. 정관 연간에는 이미 70세가 되었으나 글씨는 더욱 공교해 다른 사람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했다. <공자묘당비>는 다음과 같은

을 주었다.<sup>75)</sup>

③ 東卿 葉志詵

東卿 葉志詵(1779-1863)은 漢陽人으로 자는 東卿이고, 호는 笙林이다. 翁方綱과 더불어 金石學의 대가로 유명하다. 翁方綱의 舊宅이 동경 陔止선이 사는 곳이 되었는데, 陔止선은 곧 그의 사위이다.

陔止선의 집 뒤 담 밑에 子午泉이 있는데, 둘레는 작은 독만 하며 깊이는 두서너 길 된다. 북경의 물은 대개 흙탕물이 많은데, 이 샘물만은 子時와 午時에 맑고 차가운 것이 특이하며, 그 외의 시각에는 전처럼 흙탕물이기 때문에 ‘子午泉’이라 한다. 1817년 신위는 <子午泉> 시를 지어 陔止선에게 보내기도 하였다.<sup>76)</sup>

1817년 陔止선이 <熹平石經論語殘字><sup>77)</sup>를 교감하여 새긴 것에 신위가 글을 적었다.<sup>78)</sup> ‘石經’은 유교의 경전을 돌에 새겨 講學의 典據로 한

특징이 있다. 첫째, 용필은 등글고 유창하며 필의는 성글고 글자는 완만하다. 둘째, 온아한 가운데 표일한 기를 함유하고, 평담한 가운데 정신을 나타냈다. 셋째, 기색이 수려하고 윤택하며 풍신은 세련되고 심원하다.

75) 申緯, 『警修堂全藁』, 『紅蠶集一(1824년 9월-1825년 4월)』, <新得顏魯公多寶塔感應碑全拓本 從秋吟來者 喜述>, ‘紅豆曾寄余虞永興廟堂碑全拓本’

76)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續筆(1817년 7월-12월)>, <子午泉詩 遙寄葉東卿> 并序, ‘紀文達 昉 舊宅 今屬葉東卿有 所謂子午泉 泉味鹹 一日十二時中 惟子初午正二時 清脉湧出 甘冽異常 過時焉則依舊鹹也 玉壺李尙書(肇源) 之使還也 東卿諱託玉壺遍求東人題詠 余亦有舊於東卿 爲賦此, ‘東卿有八萬卷書樓’

77) <熹平石經論語殘字>는 東漢 靈帝 熹平시기의 석경으로 논어 없어진 글자를 1816년 陔止선이 교감하였다. 『五洲衍文長箋散稿』, <역대 石經에 대한 변증설>에 역대 석경의 내력을 대략 살펴보면, 漢 平帝 원년에 王莽이 甄豐을 시켜 『역』·『시』·『서』·『좌전』등을 古文으로 돌에 새기게 하였으니, 이것이 석경의 시초다. 그 뒤 역대로 석경을 만들어왔으나 그 문자를 고증할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의 熹平石經, 魏 나라의 正始石經, 唐 나라의 開成石經·蜀石經·北宋石經·南宋石經·淸石經 등 7종에 불과할 뿐이다. <희평석경>은 東漢 靈帝 4년에 여러 선비들로 하여금 『역』·『서』·『시』·『의례』·『공양전』·『논어』등 6경을 正定, 古文·篆·隸 등 3체의 서법을 서로 대조 검토케 하여 비석에 새겨 학교 문에 세웠던 것인데 일명 ‘三體石經’이라고도 한다.

78)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續筆(1817년 7월-12월)>, <題葉東卿無勒熹平石經論

碑이다. <희평석경논어잔자>는 東漢 靈帝 熹平시기의 석경으로 논어의 마멸된 글자를 1816년에 섭지선이 교감한 것이다. 또 같은 해 <酸棗令劉熊碑雙鉤本><sup>79)</sup>을 섭지선이 교감한 것에 신위가 글을 적었다. 이 비는 江秋史 ‘鑑藏本’으로 근거 하였는데, 무릇 243자가 많다. 송나라 洪适(1117-1184)의 『隸釋』<sup>80)</sup>에서 9자가 나왔다. 이 비와 石經殘字는 모두 丙子(1816)년에 새겼다.<sup>81)</sup> 『예석』은 송나라 홍괄이 漢魏시대의 예서로 된 碑碣 등을 모아 해서로 고쳐 쓰고 考釋을 덧붙인 책이다.

1831년 신위가 부채에 산수화를 그리고 글을 써서 섭지선에게 보냈다.<sup>82)</sup> 1833년 연경에 사신으로 갔던 希谷 李止淵(1777-1841) 尙書가 섭지선의 답신을 가져왔는데, 아울러 섭지선의 춘부장 雲素선생의 행적을 적은 『孝行錄』각 1권을 보내왔다.<sup>83)</sup>

신위와 금석학의 대가로 유명한 翁方綱·翁수근·섭지선 등과의 교류는 연행 이후에 나타나는 신위의 고증적 성향의 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

語殘字(次覃溪原韻)>

- 79) 이유원, 『林下筆記』제4권, 『金薤石墨編』, <碑碣之屬 5>, ‘<酸棗令劉熊碑>는 채옹의 글씨인데, 당나라 王建이 이 비에 시를 쓰기를, ‘글자엔 이끼 끼고 석부(石趺)는 매몰되어, 비바람에 절묘한 글 마멸되고 말았구나. 도경에서 예전에 본 적이 없었다면, 채옹이 쓴 비석인 줄 알사람 없었으리.(蒼苔滿字土埋龜, 風雨消磨絕妙辭. 不向圖經中舊見, 無人知是蔡邕碑)’하였다.’
- 80) 『隸釋』은 1167년에 洪适(1117-1184)이 漢魏시대의 예서로 된 碑碣 등을 모아 해서로 고쳐 쓰고 考釋을 덧붙인 책이다. 저자의 初名은 造인데 후에 适로 고쳤다. 자는 景伯이고, 호는 盤洲이며, 饒州 鄱陽(지금의 江西省 波陽縣)사람이다. 1142년(紹興 12)에 博學鴻詞科에 합격했고, 일생동안 金石拓本 수집을 좋아했으며, 많은 史傳의 오류를 바로잡았는데 그 考證이 매우 정밀하다.
- 81)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續筆』(1817년 7월-12월), <題酸棗令劉熊碑雙鉤本 東卿校梓梓>, ‘此碑据江秋史篋中本 凡二百四十三字多 出洪釋者凡九字’, ‘此碑與石經殘字 皆丙子刻’
- 82) 申緯, 『警修堂全藁』, 『北禪院續藁四』(1831년 7월-11월), <自題扇頭山水 寄與葉東卿>
- 83) 申緯, 『警修堂全藁』, 『和陶詩屋小藁』(1833년 11월-1834년 5월), <希谷使回 始得葉東卿武部答書 喜而有述>, ‘東卿尊甫雲素先生繼委官刑科給事中 享年七十六 以孝行奉旨旋表給銀建坊 入祀孝義祠 今寄來行述孝行錄各一卷也’

## ④ 기타

신위는 蘭雪 吳嵩梁(1766-1834)<sup>84</sup>, 秋吟 蔣惟(?-1830)<sup>85</sup>, 雲伯 陳文

84) 蘭雪 吳嵩梁(1766-1834)은 자가 蘭雪이고, 승량은 이름이며, 호는 蓮花博士·石溪老漁·石溪舫이다. 그의 아내인 蔣徽(호는 琴香閣)와 소실인 岳筠은 화가였는데, 악군은 특히 난초를 잘 그렸다 한다. 악군의 자는 綠春이다. 1825년 신위가 난설 오승량을 위해 吳架閣의 表忠錄에 시를 썼다. 그리고 1831년 신위가 자하산장에 머물러 있을 때 오승량의 <記夢詩>에 화답하였는데, 장자의 蝴蝶夢을 연상시키는 이 시는 도교적 색채와 불교적 색채가 어울려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내었다. 1834년 오승량이 坡公의 軼事를 기록한 것에 차운하였고, 오승량의 <六詠>에 차운하였다. 신위는 난설 오승량의 부인 琴香閣, 소실 岳綠春과도 교류하는데, 1817년 오승량의 소실 岳筠의 <蕙蘭圖>에 제화하였다. 이 그림은 옛날에는 翁성원의 소유물이 되었는데, 지금은 貞碧館(柳貞碧으로 柳最寬이다.)에 귀속되었다. 악녹춘의 <혜란도>에는 작은 도장 두 개가 찍혀 있는데 陰刻은 '岳氏筠姬'이고 陽刻은 '蓮華博士'이다. 그 후 1827년 악녹춘이 난을 그리고 시를 써서 부쳐왔다. 岳氏가 그린 난 그림을 예전에 흥두 翁성원에게서 한 폭 얻었는데 지금 또 한 폭을 얻었다. 1827년 난설 오승량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금향각(오난설의 부인)의 산수두루마리를 보내왔다. 오승량에게 '石溪漁隱'印이 있다. 금향각 또한 '石溪漁隱'印이 있다. 1829년 강화유수로 재직할 때 오승량이 부인 금향각에 부탁하여 부채에 산수를 그려 신위에게 보내왔기에 시로써 답해 사례하였다. 금향각의 도장에는 '石磯漁婦'라고 새겨져있다. 蘭雪山莊은 嚴灘에 있는데 도장에 '九里梅花村舍'라고 새겨져있다. 1829년 5월 20일 벽로방에서 포쇄(책을 햇볕에 쬐어 종이 먹는 것을 방지하는 일)하다가 石溪漁婦(오승량의 부인 금향각의 款號)의 산수화 죽자를 찾았기에 앵두와 죽순을 놓고 멀리 石溪漁婦의 생일을 위해 제를 지내고, 『蘭雪集』속의 운을 사용해 시를 지어 오승량에게 보냈다. 1835년에 오승량 죽하였다.

85) 신위는 秋吟 蔣惟와도 매우 절친하게 사귀었는데 주로 편지를 왕래하면서 시를 논하였다. 1825년 蔣秋吟이 顏魯公(안진경)의 <多寶塔感應碑> 拓本을 신위에게 주었으며, 또 『稟稿』42권을 부쳐왔는데 책속에 신위의 목죽화에 대해 읊은 시가 있었다. 秋吟이 전에 詩畫硯을 宜山(강세황)에게 보냈는데, 宜山이 다시 신위에게 주었다. 신위가 벼루에 새기기를 '秋吟의 詩畫硯을 마침내 내가 소장하게 됐다. 금년 봄에 내가 동산에 정자를 세웠는데 외람되어 예서체로 <養硯山房> 편액을 보내왔으니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신위가 기록하기를 '秋吟이 전에 나를 위해 <碧蘆吟舫圖>를 그렸는데 멀리 버드나무 아래 한 조각배가 가로 놓여있을 뿐이어서 매우 쓸쓸해 보였다. 秋吟이 여러 번 나의 墨竹을 보고 시를 지었는데 '東海人稱墨君堂'이라는 시구가 있다. 또 비단 천에 써서 보내기를 '浙江舊有吳道子竹石刻者 將以配刻並傳也(浙江에 옛날 吳道子の 竹石 새긴

述<sup>86</sup>)과도 교유한 내용이 많으나 여기서는 본고의 지면상 생략한다.

또 신위의 초상화를 그린 載靑 汪汝瀚, 신위에게 부채에 시를 지어 달라고 부탁한 蒙王 貝勒 丹巴多爾濟, 野雲 朱鶴年, 蘭畦 金光悌는 신위와 연경에서 직접만난 청조인사들로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 외 露葵 熊昂碧<sup>87</sup>), 茶農 張深<sup>88</sup>), 菊人 周孝廉<sup>89</sup>), 鶴田 端木國瑚

것이 있는데, 장차 신위의 목축이 짝하여 새겨 전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 비단천을 오히려 광주리 속에 넣어두고 감히 붓을 들지 못하였다. 내가 ‘東野襄陽二孟比況秋吟(孟郊(751-814)와 孟浩然(689-740) 두孟에 추음을 비교할만하다.)’라는 말을 장추음 시집의 서문에 썼다.’라고 하였다. 1829년에 추음이 오래된 시문집을 보내왔는데 『榆西仙館初稿』라고 되어있었다. 추음이 아들 蔣鎔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시집의 서문을 신위에게 부탁하라”고 하였다. 1830년 장추음이 졸하였다. 추음이 지은 책은 『河防翼議四十卷』, 『畿輔水利略五卷』, 『海運雜錄二卷』, 『臺灣兵備志十八卷』, 『地理辨正釋義四卷』, 『畿輔水利志一百卷』이 있다.

- 86) 錢塘사람 雲伯 陳文述의 <朝鮮二賢>詩가 있는데, 自注에 ‘秋吟 侍御이 申紫霞, 洪海居의 詩文을 외우는 것을 듣고 시를 지었다.’고 되어있다. 이 시의 내용으로 보면 신위가 經術에도 상당한 깊이가 있었다는 것과, ‘성명이 오랫동안 중국에 자자하여, 문자가 도리어 우리 무리에 전하네.’라고 하여 신위의 시문과 이름이 중국에 널리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1832년에 또 『畫林新詠』二冊 판각한 것을 부쳐 왔다. 진운백의 『화림신영』에 신위의 목축과 해기도위의 목축을 보충해 넣었다. 각각 간략한 전기가 있다. 『화림신영』에 ‘申紫霞의 이름은 緯이고, 朝鮮國人이다. 翰林을 비롯해 벼슬이 六曹副判, 樞密院都承旨, 留守, 副判 곧 侍郎, 都承旨 곧 軍機大臣, 留守 곧 總督을 했다. 詩文을 잘하고, 더욱 竹을 잘 그린다. 蔣秋吟 侍御가 “시는 소식과 황정견에 가깝고, 그림은 곧 짝할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榆西館集』속에 여러 번 기술되어있다.’라고 하였다.
- 87) 露葵 熊昂碧은 江蘇省 松江府 金山縣 사람으로 자는 今裴이고, 호는 雲客 또는 露葵이며, 蔣秋吟의 집에서 寓居하였다. 그는 문장에 능하고, 술을 잘 마시며, 담론을 좋아하고, 몸이 현질하고 慷慨하여 豪士의 풍모가 있었다. 일찍이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볼지 못하자 가재를 팔아 날랜 노새를 사서 남쪽으로 廬山, 衡嶽에 노닐고, 북쪽으로는 居庸關을 나가 塞外의 산천을 두루 구경하였으며, 돌아와 저술한 『雲客詩鈔』를 신위에게 한 본 보내주었다. 1827년 노유 翁양벽이 신위에게 그림 그려주기를 부탁하였다. 이에 신위가 <紫霞山莊圖>에 화제를 써 운객 翁양벽에게 부쳤다. 1843년 翁양벽이 蔣秋吟의 집에서 <朝鮮申紫霞侍郎詩>를 보고 그 뒤에 시를 쓴 것에 화답하였다.
- 88) 청나라 시인이자 화가인 茶農 張深의 자는 叔淵이고, 호는 浪客이다. 1827년 아

(1773-1837)<sup>90</sup>), 曉山 關藻<sup>91</sup>), 金粟 錢林(1762-1828)<sup>92</sup>), 卯橋 丁泰<sup>93</sup>), 尙  
璽 鄧守之<sup>94</sup>), 石士 陳用光<sup>95</sup>), 羽可 郭儀霄(1775-?), 樹齋 鬱滋, 至堂 艾

들 命準에게 부친 시에 ‘예운림이 특별히 종파를 열었고, 미불이 스스로 가풍을  
갖추었네.(倪雲林別開宗派 米敷文自具家風)’라고 하였다. 또 제하기를 ‘소하존형  
자하선생이 시화연원을 잇게 하여 동국에 이름 유명하다고 들었네.(少霞尊兄 聞  
爲紫霞先生 令嗣詩畫淵源 著聲東國)’라고 하였다. ‘少霞’는 아들 명준을 가리킨  
다. 이때 명준은 막 『禮記』를 읽고 있어 그를 대신하여 신위가 답신하였다. 다농  
장심이 신위에게 <五州烟雨圖>를 보냈다. 張茶農(張深)이 그림 뒤에 쓰기를,  
‘五州山은 南徐의 鎮山이 되기 때문에, 송나라 米海岳(米芾) 부자가 그것을 사랑  
해서 그린 것이 많다. 청나라의 王石谷(王翬)·查梅壑(查士標)·笪江上(笪重光)  
등 세 현인이 일찍이 그림 한 본을 함께 그리고 제목을 <五州煙雨>라고 붙였으  
니, 대개 미해악 부자를 모방한 것이다. 자하선생이 자세히 六法을 연구하여 海  
東의 宗匠이 되었는데 그윽이 미불의 뜻을 취하여 정통에 나아갔다.’고 하였다.  
다농은 蒼雪(張崧)의 아들 張深이다. 이 그림은 養硯山房 벽에 걸려있었는데, 나  
중에 이유원이 소장하여 林下廬의 벽에 걸었다.

- 89) 신위는 菊人 周孝廉과도 깊은 사귀어 있었다는 운객 응양벽의 기록이 있다. 鄧  
守之·周菊人·張茶農·吳蘭雪이 모두 신위 부자를 大·小霞라 불렀다. 신위의  
집 이름은 碧蘆舫이다. 전에 尹虛舟를 통해 周菊人에게 편액의 글을 부탁했는데  
주국인이 보내온 글에 ‘虛舟尊兄이 못가에 집을 지었다. 云云’이라고 하였다. 나  
중에 虛舟와 신위가 쟁론한 뒤로부터 碧蘆舫의 이름은 오랫동안 그대로 결정되  
지 않았다. 뒤에 雨村 南尙教(1784-1866)를 통해 다시 ‘碧蘆舫’三字를 가지고  
菊人에게 부탁하여 다시 쓰고 落款했다. 1825년에 주국인이 李玉壺상서를 통해  
신위에게 <金剛山圖>를 그려주기를 부탁하였다.
- 90) 端木國瑚(1773-1837)의 자는 子彝·井伯이고, 호는 鶴田·太鶴山人이며, 內閣中  
書와 歸安教諭 등을 역임하였다. 鶴田 端木國瑚는 본래 신위와 잘 알지 못하나  
죽은 자기의 친구 海寧사람 笪溪 鍾大源의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의 이름은 『東  
海半人詩鈔』8권이다. 대체로 신위에게 찍어 없어지지 않는 말로 써달라는 부탁  
이었다. 이에 시를 써서 보내온 뜻에 사례하였다. 鶴田은 그때 內閣中書 벼슬을  
하고 있었다. 易學에 깊고 阮元(1764-1849)公의 門人이다.
- 91) 申緯, 『警修堂全藁』, 『覆瓿集四(1840년 4월-1840년 10월)』, <關曉山翰編 藻 字  
曰蘭生 蕪州人也 轉乞余墨竹行書 爲作小帖應之 題以一詩>
- 92) 申緯, 『警修堂全藁』, 『江都錄一(1828년 9월-1829년 9월)』, <輓錢金粟學士> 其  
三, ‘金粟臨終 于託秋吟以詩卷寄紫霞 故秋吟輓詩云 未了事完才易質 屬許舊句寄  
鷄林’
- 93) 申緯, 『警修堂全藁』, 『九十九菴吟藁二(1830년 9월-12월)』, <丁卯橋中翰 泰 於雲  
客齋中 見余詩畫 口占一絕句 遙誦神交 久而未復 追次原韻 卯橋浙江人>
- 94) 申緯, 『警修堂全藁』, 『花徑賸墨九(1824년 2월-1824년 7월)』, <江南皖人鄧守之

暢(1787-?), 霽嵐 周誠之(澹隱山人) 등과도 교류하였다.

### 3. 청나라 연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

#### 1) 옹방강과 청대의 고증적 성향의 시

명말·청초부터 대두한 고증학은 훈고학을 기초로 經學과 史學으로부터 출발하여 실증적 학문의 방법으로 확립되면서 시·서·화·古董遺物 등 학술문에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고증적 시는 시의 산문화나 시 行間에 自注를 기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식의 특성은 도덕적·정서적 동기가 아닌 이성의 작용에 의해 창작된다는 점에서 ‘詩言志’나 ‘詩緣情’으로 정의되어온 전통적 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또한 작가 스스로가 箋注家가 되어 자주를 기재함으로써 자신의 사적 생활도 자유롭게 전고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의 산문화나 자주의 기재는 송시의 한 특성이나 고증적 시는 이러한 송시의 특성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옹방강은 ‘格調가 곧 神韻이며, 神韻이 곧 肌理이다.’<sup>96)</sup>라고 했듯이 格調說과 神韻說을 다 받아들여 격조설과 신운설의 편향성과 말단적 폐단을 교정, 보완한다는 취지아래 유가 경전에 뿌리를 둔 학문을 중시하며, 宋詩를 ‘學人之詩’의 전형으로 표방하는 肌理說을 제창하였고<sup>97)</sup>, 더 나

尙璽 以詩求 命準 畫 戲用其韻 自題墨竹寄鄧 遙結一重墨緣 字書 皖與皖通>

95) 申緯, 『警修堂全藁』, 『紅蠶集三(1825년 10월-12월)』, <南雨村進士 從鶯溪院判入燕 話別之次 雜題絕句 多至十三首 太半是懷人感舊之語 雨村此次 與諸名士遊 到酣暢 共出而讀之 方領我此時心事>, ‘石士曾有題命準畫扇詩’

96) 翁方綱, 『神韻論中』, 『復初齋文集』卷八, ‘翁方綱把 格調說和 神韻說都納入 肌理說的範疇之中 昔之言格調者 吾謂新城變格調之說而衷以神韻 其實格調即神韻也 今人誤執神韻 似設空言 是以鄙人之見 欲以肌理之說實之 其實肌理亦即神韻也’

97) 格調說·神韻說·肌理說에 관해서는 車柱環, 『中國詩論』,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273-366면.; 車相轅, 『中國古典文學評論史』, 汎學圖書, 1975, 547-582면. ;

아가 시의 고증적 효용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고증학 활동이나 성과를 시로 창작하는 소위 ‘以學爲詩’, ‘以考據爲詩’의 창작방법을 수립했으며, ‘고증하는 일과 시 쓰는 일이 두 가지가 아니다.’<sup>98)</sup>고 하여, 고증학과 시문학의 일치를 추구했다. 학문을 시문학의 한 요소로 중시한 청대시단의 일반적 흐름에서 학문과 고증을 시문학에 가장 직접적으로 일치시켰던 것이다.

실제 창작에 있어서 옹방강의 시에 대해서 『淸史稿』에는 ‘諸經에 대한 注疏로부터 史傳의 考訂, 금석문자의 정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시 속에 관철되고 가득 차 있어 論者들은 ‘以學爲詩’한다고 하였다.’<sup>99)</sup>라고 하여 옹방강이 ‘以學爲詩’로 지칭되는 작시의 전형을 수립했음을 알 수 있다. ‘以學爲詩’란 학문과 도덕적 수양이 쌓이면 시는 자연히 유출되어 나온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sup>100)</sup> 경전에 주소를 달고 史傳을 고증·교정하며, 금석문자를 감식·정리하는 등 모든 학술활동을 시로 표현했음을 뜻한다. 학문축적을 통해 얻은 많은 전고를 시에 기재하는 성향이다. 또한 오승량은 옹방강의 시집을 편찬하며, ‘性情·風格·氣味·音節 등 시인의 正道가 표현된 것을 內集이라 하고, 考據博雅한 文을 가지고 시로 지은 것을 外集이라 하는데 스승도 이에 동의 하였다.’<sup>101)</sup>고 하였다. 오승량은 옹방강의 독특한 시풍이 고증학을 비롯한 각종 학술의 ‘文’을 ‘詩’로 짓는 것이라 파악하였고 옹방강 또한 스스로 인정하였던

李銀赫, 「秋史 金正喜의 詩論研究-淸朝 詩學과 관련하여-, 한국사상문학회, 1999, 92면.; 이철희, 「秋史 金正喜의 詩論研究-중국시론의 수용과 조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2-151면을 참조하였다.

98) 翁方綱, 『復初齋文集』卷四, <蛾術編序>, ‘考訂訓詁之事 與詞章之事 未可判爲二途’

99) 趙爾巽 主編, 『淸史稿』卷四八七, 中華書局, 1977, 第三百八十九章, 列傳二百七十二, 文苑二(2), ‘所爲詩 自諸經注疏 以及史傳考訂金石文字爬梳 皆貫徹洋溢其中 論者能以學爲詩’

100) 張葆全 主編, 『中國古代詩話詞話辭典』,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2, 177면.

101) 藤塚鄰 著, 박희영 역, 『추사 김정희의 또 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245면.

것이다.<sup>102)</sup>

예컨대 옹방강은 추사 김정희가 선물한 <日本刻秦嶧山碑帖>에 대하여, <跋嶧山碑><sup>103)</sup>라는 글을 지어 자세히 고증하고, 아울러 <秦嶧山碑舊本><sup>104)</sup>이라는 장편의 시를 지었다. 그 일부를 보자.

嶧山秦碑日本刻 嶧山の 秦碑<sup>105)</sup> 일본각은  
 謂出棗木肥本前 棗木の 肥本<sup>106)</sup>보다 앞선 것이라 한다.  
 棗木之刻誰所作 조목의 각은 누가 새긴 것인가  
 杜公初擬孤嶧嶺 두보가 처음 孤嶧嶺의 秦碑와 비교했다.  
 ('孤嶧秦碑在'杜早年句 未考是重刻 '孤嶧嶺에 진시황 비석이 있다.'<sup>107)</sup>  
 는 두보의 젊은 시절의 시구는 이것이 重刻本인지 살피지 않은 것이다.)

-중략-

杜以肥瘦辨今古 두보는 살찌고 마른 것으로 고금을 분별하였는데  
 之罘摹更肥甚焉 之罘刻石은 더욱 살찼어라.

-중략-

此卽元祐嶧陰堂本 이것은 元祐 년간의 嶧陰堂本  
 徐鉉前此又百年 徐鉉本은 이보다 앞서길 또 백년이네.

嶧山碑는 원래 진시황 때 새긴 6개의 비석<sup>108)</sup> 중 제일 앞선 것으로 간

102) 이철희, 『秋史 金正喜의 시문학에 나타난 고증학의 영향』, 한국시가연구 제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255, 256, 259, 260면 참고.

103) 翁方綱, 『復初齋文集』卷20, <跋嶧山碑>, 廣文書局, 1982.

104) 翁方綱, 『復初齋文集』卷68, <秦嶧山碑舊本>, 廣文書局, 1982.

105) <嶧山刻石>, 진시황 28년(기원전 219)에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행하며 역산에 올랐고, 승상인 李斯 등이 그의 공덕을 칭송하는 글을 돌에 새겼는데, 이 석각은 이사가 쓴 것이라 전해진다.

106) <棗木傳刻>, 대추나무는 매우 단단하여 옛 사람들은 비첩을 새기는데 주로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역산각석>의 대추나무 번각본을 가리킨다.

107) 杜甫, 『補注杜詩』, 卷十七, <登兗州城樓>, 欽定四庫全書,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0, '東郡趨庭日 南樓終日初 浮雲連海岱 平野入青徐 孤嶧秦碑在 荒城魯殿餘 從來多古意 臨眺獨躊躇'

108) 진시황의 刻石은 각 지역에 세워진 진시황의 송덕비인데 다음과 같다. ①. 嶧山刻石 ②. 泰山刻石 ③. 琅邪臺刻石 ④. 之罘刻石 ⑤. 碣石刻石 ⑥. 會稽刻石

주되지만 原石拓本은 일찍부터 망실되고 7종의 摹刻本만 전해왔다.<sup>109)</sup> 김정희가 선물한 일본각본은 杜甫가 <李潮八分小篆歌>에 ‘역산의 비는 들불에 소각되고, 대추나무에 옮겨 새긴 건 살쥘서 참모습을 잃었네.(嶧山之碑野火焚 棗木傳刻肥失真)<sup>110)</sup>라고 한 것에 비하여 서체가 마른 형태이므로, 두보가 본 棗木肥本보다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옹방강은 두보가 서체의 살이 찌고 마른 것으로 고금을 분별하는 방법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일본각본이 송대 元佑 년간에 모각된 嶧陰堂本과 일치한다고 고증한 것이다. 이 시에서 옹방강은 역산비의 모각본에 대한 고증을 시로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跋嶧山碑>와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옹방강 시의 특징은 ‘以考據爲詩’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sup>111)</sup>

또 신위에게 조문민(조맹부)의 진적을 影搨한 본이 있었는데 이것은 옛날 尙書 姜豹庵(姜世晃)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聽松 成守琛(1493-1564) 선생의 ‘鑑藏本’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거기에 ‘푸른 적삼에 백발의 늙은 참군이, 이내 기장을 팔아 술을 사 오네. 객을 붙들어 취하게 할 돈만 있다면, 말 타고 남의 문 앞 기웃거리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양(靑衫白髮老參軍 旋糶黃梁買酒尊 但得有錢留客醉 也勝騎馬傍人門 子昂)’이라고 적혀있었다. 庚午년(1810) 여름에 신위가 진사인 金秋史(金正喜)에게 이 영답본을 주었다.

청나라 秋史 江德量 역시 조맹부의 목적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맹부의 목적을 옹담계에게 보여주자 담계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써주었다.

109) 모각본이 번각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長安 徐鉉摹本, 鄭文寶 刻石, 西安府學 2. 紹興 3. 浦江 鄭氏 4. 應天府學 李處巽刻, 江寧縣學尊經閣 5. 靑社 金臯昌 甲寅 河南 李中坦刻 6. 蜀中 7. 芻縣 ①. 宋 元佑 8년(1083) 張文仲 嶧陰堂刻 ②. 元 至元 29년(1292) 重刻(후지추카 치카시 저, 윤철규 외 옮김, 『추사 김정희연구』, 과천문화원, 2009, 280-281면 참조.)

110) 杜甫, 『補注杜詩』, 卷十四, <李潮八分小篆歌>, 欽定四庫全書,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0.

111) 琴知雅, 『翁方綱의 詩學과 學術詩』, 『중국어학논집』48, 2008, 336-340면 참조.

江秋史(江德量)가 趙文敏(趙孟頫)의 목적을 얻었는데, 거기에 ‘푸른 적삼에 백발의 늙은 참군이, 이내 기장을 팔아 술을 사 오네. 객을 붙들어 취하게 할 돈만 있다면, 말 타고 남의 문 앞 기웃거리는 것보다 나으리라. 나는 이 시를 가장 애송해서 자주자주 써서 뜻을 달랜다. 자양(靑衫白髮老參軍 旋糶黃梁買酒尊 但得有錢留客醉 也勝騎馬傍人門 余最愛此詩 頻頻書之 以自適意耳 子昂)’이라고 적혀있었다. 모두 44자인데, 거의 반 정도는 사람들이 베껴 쓰다 손상되어 다시는 원래 글자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내가(담계) 세심히 살펴 25자를 보존하여 ‘完璧帖’이라 제목을 붙여 돌려주고 그 뒤에 이 글을 적는다.

完璧歸于趙 온전한 구슬은 조나라로 돌아갔고  
 生花夢自江 붓끝에서 꽃이 핀 꿈은 강추사로부터이다.  
 千秋吟買酒 천추에 술 산다는 시를 읊고서  
 幾夕剔寒缸 며칠 밤을 등잔불의 심지를 돋우며 얘기했다.  
 曲折圖移繡 곡절을 그림으로 비단에 옮기고  
 橫斜擗就窓 가로 비스듬히 창 앞으로 가져간다.  
 似聞苔雪上 초계(苔溪)와 삼계(雪溪)의 위에서  
 搖膝韻吳鱉 무릎을 흔들며 부르는 오나라 뱃노래가 들리는 듯하다.  
 (此詩 宋德清盧政議作 이 시는 송나라 덕청 사람 政議 盧秉이 지은 것이다.)<sup>112)</sup>

담계는 조맹부의 목적에 적힌 시가 송나라 덕청 사람 政議 盧秉이 지은 것이라 고증하고, 사람들이 베껴 쓰다 손상된 44자 중에서 25자를 보존하여 돌려주었다.

신위가 丁丑년(1817) 上元(1월 15일)에 우연히 옹담계의 『복초재집』을 열람하다가 앞에 나오는 시를 읽고 그 기이한 인연에 기뻐하며 담계의 시에 차운해 시를 지었다.

담계본에 의거하여 조문민이 이 시를 여러 번 써서 세상에 전하는 것

112) 翁方綱, 『復初齋文集』卷30, 廣文書局, 1982.

이 한두 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계본은 청송본에 비하면 단지 ‘내가 이 시를 가장 애송해서 자주자주 써서 뜻을 달란다.(余最愛此詩 頻頻書之 以自適意耳)’는 14자가 많을 뿐인데, 누구의 것이 진적인지는 모르겠다. 완벽첩(담계본)은 남아 있는 글자가 다만 25자뿐이니, 또 청송본의 완전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글씨가 하나는 강추사에게 가고, 하나는 김추사에게 갔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담계의 원운을 빌려 추사의 묵연을 축하한다.

翰墨徵秋史	글씨를 秋史에게 증명했는데
如今不姓江	지금은 江秋史가 아니라네.
雙鉤三十字	쌍구로 쓴 서른 글자는
一炷百千缸	한 심지에 수많은 등잔이 필요했네.
松壑聲傳耳	골짜기 솔바람은 귓전에 들려오고
鷗波影落窓	기러기 그림자는 창 위에 비치네.
覃翁完不得	담계옹이 완전히 얻지 못한
眞璧壓東轆	진벽이 동쪽 배를 가득 채우네. <sup>113)</sup>

신위는 담계본에 의거하여 조맹부의 목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한두 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담계본은 청송본에 비하면 14자가 많은데, 담계본은 남아 있는 글자가 다만 25자뿐이니, 또 청송본의 완전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옹방강과 신위는 시로써

113)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二筆(1817년 1월-6월)」, <題趙文敏眞迹影摹本 贈金秋史進士正喜 并序>, ‘余舊藏姜豹菴尙書影搨趙文敏墨迹 云青衫白髮老參軍 旋糶黃梁買酒尊 但得有錢留客醉 也勝騎馬傍人門 子昂三十字 摹自聽松先生鑿藏本者也 庚午夏 余贈金秋史進士 丁丑上元 偶閱翁覃溪復初齋集 有曰江秋史得趙文敏墨迹 云青衫白髮老參軍 旋糶黃梁買酒尊 但得有錢留客醉 也勝騎馬傍人門 余最愛此詩 頻頻書之 以自適意耳 子昂凡四十四字 半爲人描壞 不復成字 余爲審擇存廿五字 題曰完璧帖而歸之 因題其後 完璧歸于趙 生花夢自江 千秋吟買酒 幾夕別寒缸 曲折圖移繡 橫斜榻就窓 似聞茗雪上 搖膝韻吳雙云云 据此知趙文敏頻書此詩 人間不止數本 覃溪本比聽松本 但多余最愛此詩頻頻書之以自適意耳十四字耳 不知孰爲眞迹也 完璧帖存只廿五字 則又不及聽松本之完矣 此書之一歸江秋史 一歸金秋史 洵一段奇事也 遂次覃溪原韻 以賀秋史之墨緣’

조맹부의 목적을 고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중반 이후 李德懋, 朴齊家, 柳得恭, 李書九, 朴趾源 등이 청나라에서 성행하던 고증적 성향의 시를 수용하였다.<sup>114)</sup> 신위는 ‘조선후기 四家’에 의해 비롯된 청대 시 수용을 계승하였으며<sup>115)</sup>, 청나라에 가서 옹방강을 만나고 돌아와 옹방강의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以學爲詩’, ‘以考據爲詩’로 칭해지는 옹방강의 고증적 성향의 시를 수용하게 된다. 옹방강은 소식을 스승이라 칭하고<sup>116)</sup>, 신위는 옹방강의 제자라고 하였다.<sup>117)</sup> 그 결과 신위는 방대한 독서를 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고증적 성향의 시를 창작했다.

## 2) 신위의 고증적 성향의 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위의 시에서 나타나는 고증적 성향은 1812년 청나라 연행 이후로 금석학의 대가인 옹방강과 옹수곤 그리고 섭지선 등과의 교류에서 비롯되었다.

그럼 신위의 시에서 고증적 성향의 시들을 살펴보자.

신위가 「虞注杜律」은 伯生 虞集(1272-1348)<sup>118)</sup>이 注한 것이 아니라 伯成 張性<sup>119)</sup>이 注했음을 고증하여 밝혔다. 1835년 신위는 <題虞注杜詩

114) 安大會, 『朝鮮後期 詩話史 研究』, 국학자료원, 1995, 155-168면 참조.

115) 金澤榮, 『申紫霞詩集』序, ‘惟申公之生 直接薑山諸家之踵 以詩畫書三絕 聞於天下’

孫八洲, 『申緯詩文學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269면.

이현일, 『자하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7면.

李庚秀, 『漢詩四家の 清代詩 受容研究』, 태학사, 1995.

李庚秀, 『秋史 金正喜의 清代詩 受容』, 한국한시학회, 1998, 256면.

116) 李裕元, 『嘉梧藁略』冊十四, <玉磬觚臚記>, ‘翁氏稱師於蕪氏 而紫霞秋史稱以蕪齋弟子’

117) 申緯, 『警修堂全藁』, 「戊寅錄(1817년 12월-1818년 3월)」, <覃溪以今年正月廿七日亡 訃至 以詩悼之>, ‘余贈覃溪詩 稱蕪齋弟子’

118) 虞集(1272-1348), 字는 伯生이고, 號는 道園이다.

119) 張性, 字는 伯成이고, 江西 金溪人이다.

## 後&gt; 并序에서

「虞注杜律」은 내가 젊은 날에 늘 伯生 虞集에게 이름을 의탁한 것을 의심했는데, 특히 이 논의는 오래되었다. 근래에 『滄浪集抄本』에 「虞注杜律」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다. 嘉靖년간에 太原군수 濟南 黃臣과 山西 監察御史 浮山 穆相이 이 책을 重刊하였다. 황신이 跋을 썼는데 그 대략을 말하면 “내가 『麓台詩話』에서 西涯 李東陽(1447-1516)이 虞注를 논한 것을 읽었는데, 반드시 伯生 虞集이 지은 것이 아니다. 내가 도성에서 노닐다가 우연히 한 本을 얻었는데, 책 이름이 『杜工部律詩演義』였다. 진실로 虞注와 차이가 없었다. 序에 元나라 말이라고 하고, 京口의 진사 張性 伯行은 박학 하였으나 일찍 죽었다. 고향친구들이 그를 애도하다가 이 遺稿를 얻어 서로 힘을 합하여 간행하였다. 내가 그 책을 얻어 매우 기뻐 서애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마침 서애가 죽어 그리질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책이 지금에 이르러 虞集이注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에 근거하면 곧 이 글은 伯生 虞集이注한 것이 아니다. 옛 사람이 이미 나보다 먼저 그것을 의심하였으니 하물며 황신이 跋을 써 밝혀 증거 한 것이겠는가? 張性은 元나라 사람이다. 伯行과 伯生은 음이 서로 비슷하나 일찍 죽었다. 우도원(虞道園, 虞集의 호)은 곧 원나라 때의 大家이다. 고로 마침내 虞注로 일컬음을 받은 것이다.<sup>120)</sup>

## 라고 하고, 시에

託名虞集豈張意 虞集의 이름 맡김 어찌 張性의 뜻이라  
黃跋明言惠後嘉 黃臣의 跋文이 명확히 밝혀 후학에게 은혜 끼쳤네.

120) 申緯, 『警修堂全藁』, 「祝聖初藁一(1834년 11월-1835년 5월)」, <題虞注杜詩後二首 并序>, ‘虞注杜律 余自少日 每疑其託名於伯生 持此論久矣 近見成滄浪集抄本所載 以爲虞注杜律 嘉靖間 太原守濟南黃臣與山西監察御史浮山穆相重刊此書 黃自爲跋 其略云余讀麓臺詩話西涯論虞注 必非伯生之作 余遊都下 偶獲一本 名曰杜工部律詩演義 實與虞注不差 序稱元季 京口進士張性伯行博學早亡 鄉人悼之 得此遺稿 因相與合力刊行 余得之喜甚 欲以其書告西涯 會其卒而未果 此書至今以虞注行 据此則此書之非伯生 古人已先我而疑之 況有黃跋之明證耶 張性元人也 伯行與伯生 音相近而早亡 虞道園則元時之大家也 故遂以虞注見稱耶’

此注平生疑未決 이 주석 평생토록 의문품고 결정하지 못했더니  
我心先獲李西涯 내 마음, 앞서 李西涯(李東陽)가 얻었지.

라고 하였다. 신위가 젊은 날에 늘 「虞注杜律」이 伯生 虞集이注했다는 것을 의심했는데, 濟南 黃臣의 跋에 ‘伯生 虞集이注한 것이 아니라 곧 張性 伯行이注한 것이다. 伯行과 伯生은음이 서로 비슷하다. 이 때문에 다만 와전되어 伯生 虞集으로 알게 된 것이다.’라고 한데 근거하여 「虞注杜律」은 伯生 虞集이注한 것이 아니라 伯行 張性이注한 것임을 변증하였다.

그런데, 6년 후인 1841년 봄, 신위가 다시 「虞注杜律」을 고증하기를 阮亭 王池의 『北隅談』을 열람하고 張性의字가 伯成임을 확인 하였다. 張性의字는 伯成이고 또 伯行이 아니다. 그런 즉 원래 그字의음이 伯生에 비슷하여 虞集이注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신위는 <再題虞注杜律> 并序에서

내가 乙未년에 「虞注杜律」을 얻어 보았는데 濟南 黃臣의 跋이 있어 곧 시 두 수를 써서 伯生 虞集이注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변증하였다. 곧 張性 伯行이注한 것이다. 伯行과 伯生은음이 서로 비슷하다. 이 때문에 다만 와전되어 伯生 虞集으로 알게 된 것이다. 오늘 마침내 阮亭 王池의 『北隅談』을 열람하고 더욱 伯生 虞集이注한 것이 아님을 확신 하였다. 阮亭曰 “杜律은 곧 張性이注한 것이고, 伯生 虞集이注한 것이 아니다. 張性의字는 伯成이고, 江西 金溪사람이다. 元나라 進士로 일찍이 『尙書補傳』을 저술하고 獨足翁 吳伯慶의 <輓詩>에 ‘箋疏空令傳杜律, 志銘誰與繼唐碑.’가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일찍이 張性注 舊本을 얻었다. 생각건대 이것은 곧 張性의字가 伯成이고 또 伯行이 아니다. 그런 즉 원래 그字의음이 伯生에 비슷하여 虞集이注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또 한 번 탄식한다.<sup>121)</sup>

121) 申緯, 『警修堂全藁』, 「覆甌集六(1841년 윤3월-1841년 5월)」, <再題虞注杜律 并序>, ‘余在乙未 得見虞注杜律濟南黃臣跋 卽題二詩 確辨其非虞注 乃張性伯行之注 而伯行與伯生音相近也 故但知以訛傳爲虞伯生矣 今乃閱王阮亭池北隅談 益

라고 하였다. 신위가 「虞注杜律」을 고증한 내용을 이렇다. 「虞注杜律」은 원래 진사인 伯成 張性이 지은 것인데, 張性이 일찍 죽고 당시 元나라 때의 大家인 虞集의 자가 伯生이어서 虞集이 지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黃臣이 ‘張性の 자가 伯行이라서 伯行과 伯生은音が 서로 비슷하다. 이 때문에 다만 와전되어 伯生 虞集으로 알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다시 신위가 阮亭 王池의 『北隅談』을 열람하고 張性の 자가 伯成임을 확인 하였다. 그런 즉 원래 그 字의音が 伯生에 비슷하여 虞集이 注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虞注杜律」은 伯生 虞集 → 伯行 張性 → 伯成 張性이 주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이 시는 신위가 학문축적을 통해 얻은 고증 성과를 ‘考據博雅’한 文으로 시의 序에 기재하고, 또 ‘以學爲詩’, ‘以考據爲詩’의 창작특징을 보여준다.

1819년 신위는 춘천 부사로 재직할 때 淸平山을 다녀왔다. 淸平산은 옛날 이름이 慶雲山이다.<sup>122)</sup> 행로는 淸平洞口 ⇒ 九松亭瀑布 ⇒ 瑞香院 ⇒ 影池 ⇒ 淸平사 極樂殿 ⇒ 降仙閣 ⇒ 眞樂公 高麗處士 李資玄의 <文殊院重修院碑>에 이르렀다.

진락공<sup>123)</sup> 고려처사 이자현의 <문수원중수원비>는 고려국사 탄연선사의 글씨이다. 문수원은 진락공 이자현이 淸平산 普賢院을 개칭하여 은거한 암자이다.<sup>124)</sup>

---

知其所未知 阮亭曰 杜律乃張注 非虞注 張性字伯成 江西金溪人 元進士 嘗著尙書補傳 獨足翁吳伯慶有輓詩云 箋疏空令傳杜律 志銘誰與繼唐碑 予在京師 曾得張注舊本 止 按此則張性字伯成 又非伯行也 然則原非其字之音近於伯生而稱虞注也 又爲之一嘆

122) 申緯, 『警修堂全藁』, 「貂錄四(1819년 4월-6월)」, <千年古樹>, 「淸平山 古名慶雲山」

123) 眞樂公, 李資玄(1061-1125)의 시호이다. 고려의 학자·문인으로 字는 眞精이고, 호는 息庵이다. 중서령 字淵의 손자이다. 文宗 말에 문과에 급제, 宣宗 때 大樂署丞을 사직하고 춘천 淸平산에 들어가 普賢院을 文殊院이라 개칭하고, 은거하며 禪學에 심취하였다. 淸平산에 ‘淸平息庵’이란 4자의 해서를 남겼다.

124) 申緯, 『警修堂全藁』, 「貂錄四(1819년 4월-6월)」, <眞樂公 重修文殊院碑 僧坦然書 眞樂公 高麗處士李資玄>

楷書率更令    해서는 솔경령의 서체요  
 行書聖教序    행서는 <성교서>체로다.  
 坦然亦麗人    탄연은<sup>125)</sup> 다만 고려 사람인데도  
 豈有別機杼    어떻게 별다른 서체로 썼는지.<sup>126)</sup>

‘眞樂公’은 息庵 李資玄(1061-1125)의 시호이다. 이자현은 고려의 학자이자 문인이다. 그는 벼슬을 사직하고 전국의 명산을 유람하던 중에 춘천의 청평산에 들어가 보현원을 ‘文殊院’이라 개칭하고 은거하였다. 이 비문의 碑額은 해서로, 본문은 행서로 쓰여 졌으며 默庵 坦然(1070-1159)의 글씨이다.

기구에서 ‘率更令’은 初唐의 서예가 歐陽詢(557-641)의 벼슬이 太子率更令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서체를 ‘歐體’ 혹은 ‘率更體’라고 부른다. 이 비의 碑額이 해서로 되어 있는데, 해서는 구양순의 서체로 썼다는 것이다. 송구에서 <聖教序>는 바로 왕희지의 글씨를 가리킨다. 행서로 된 <성교서>는 唐나라 때 승 懷仁이 高宗의 칙명을 받고 궁중에 秘藏된 왕희지의 行書 墨跡 중에서 集字하여 만든 碑刻 글씨이다. 본문은 왕희지의 <성교서>체로 썼다는 것이다. 전·결구는 탄연이 구양순과 왕희지의 서체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서체로 썼음을 賞讚한 것이다.

탄연의 서에 대해서 이광사는 『圓嶠書訣後編』에서 “고려의 승려 탄연이 오로지 <성교서>를 본받아서 실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서법을 열어 주었다.”<sup>127)</sup>고 하였다. 또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서는 “王師 탄연의

125) 坦然(1070-1159), 경남 밀양 출생으로 고려의 승려·서예가이다. 號는 默庵이고, 諡號는 大鑑이다. 廣明寺 慧炤國師의 門下가 되었다. 왕희지 體에 능하였다. 남은 작품으로 <淸平寺文殊院重修碑>(春川), <北龍寺碑>(醴泉), <僧伽寺重修碑>(서울 삼각산) 등이 있다.

126) 申緯, 『警修堂全藁』, 『貂錄四(1819년 4월-6월)』, <眞樂公 重修文殊院碑 僧坦然書 眞樂公 高麗處士李資玄>

127) 李鍾燦 編譯, 『서예란 무엇인가』, 梨花文化出版社, 1998, 146-147면, ‘麗僧坦然 專象聖教序 而實啓東人團撥之畫’

글씨는 행서에 더욱 뛰어났다...(중략)...이것은 어찌 배워서 얻은 것이겠는가? 반드시 하늘에서 받은 것이다. 그런 즉 마땅히 탄연의 글씨를 神品の 제2에 두어야 한다.”<sup>128)</sup>고 하였다. 또한 崔滋(1188-1260)의 『補閑集』에서는 “대감국사 탄연은 필적이 정묘하고 시격이 高談하다.”<sup>129)</sup>고 하였다.

신위가 탄연이 쓴 <문수원비>를 탁본하였다. 날이 어두워져서 후면의 祭眞樂公의 文을 탁본하지 못하였다. 이 또한 탄연이 쓴 것이다. 아들 명준이 다시 청평에 들어가 그 후면을 탁본하였다. 또 천년 고목인 삼나무 아래 버려진 연못가에서 비석 하나를 파냈는데 씻어보니, 바로 益齋 李齊賢 선생이 찬한 <施藏經碑>였다. 명준이 정성들여 3분을 탁본하였다. 이 비는 <문수원비>와 더불어 산중의 문헌이라 主僧 松坡 장로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그 비를 옮겨다가 절의 처마 밑에 두어 風雨로부터 보호하게 하였다. 비석은 깨어져서 크고 작은 것이 모두 다섯 조각이었다. 탄연이 쓴 비의 음각 글씨는 세상에 전하는 탁본이 없다. 명준이 처음으로 탁본한 것이다.<sup>130)</sup>

<1>我初訪碑到慶雲 내가 처음 비석 찾아 慶雲山<sup>131)</sup>에 왔다가  
但文殊院半段文 겨우 <문수원비> 반쪽만을 탁본했네.  
小兒耽古乃過我 우리아이 옛것에 심취함이 나보다 더 심해  
再來鼉蠟窺山門 다시 鼉蠟로 山門을 엿보았지.

128)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卷第十一, 「贊 十三」, <東國諸賢書訣評論序 并贊 晉陽公令述>, ‘王師坦然書 於行尤所長 每一披閱 精彩爛發 如芙蓉之出池中 含骨鯁 掩以瓊肌 如巧工之施材 穩當相銜 亦無彫鑿之痕矣 此豈學而得之 必受之天者歟 然則當以坦然居神品之第二’

129) 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一志社, 1996, 518면, ‘大鑑國師坦然 筆蹟精妙 詩格高淡’

130) 申緯, 『警修堂全藁』, 『貂錄四(1819년 4월-6월)』, <次韻命準江行六絕句>, ‘坦然碑陰文 世無拓本之傳者 此拓自命準始也’

131) 申緯, 『警修堂全藁』, 『貂錄四(1819년 4월-6월)』, <千年古樹>, ‘清平山 古名慶雲山’

誦書不苟唐臨晉 祭文글씨 구차하게 唐人이 짚帖을 임모한 것 아니라  
 乃其坦然之自運 坦然的 독창적인 필법이네.  
 一碑又出此碑餘 이 비석 말고 다른 비석 또 나와  
 掘地洗別苔盈寸 파내어 이끼를 한 치나 씻었다네.  
 <2>佛書一藏施三韓 불경 한 벌 三韓에 시주하고  
 刻石紀跡清平山 돌에 새겨 행적적어 청평산에 세웠다네.  
 貝署官銜體嚴謹 官銜을 갖추어 쓴 격식 자못 엄정하여  
 益齋先生文筆嫺 益齋 선생 文筆은 참 아름답구나.  
 書者內侍秩賜紫 글씨 쓴 이는 紫金魚袋하사 받은 內侍<sup>132)</sup>로  
 名字泐損唯姓李 이름은 마멸되고 李씨 성만 확인된다.  
 有元泰定四年春 元나라 泰定 4년(1327) 봄에  
 皇后祈福皇太子 황후가 황태자 복을 빌려 하였다네.  
 -중략-

<3>于時大臣金匡定 당시에 대신 金匡定은  
 綠髮貴人詩夢醒 ‘푸른 머리 맑은 말씨 귀인입니다.’라는 詩꿈 꾸었네.  
 我喜讀碑徵國史 나는 비문 읽으며 국사를 징험함을 기뻐하니  
 家集圖經誤堪證 『益齋亂藁』와 『高麗圖經』의 잘못을 변증할 수 있  
 었네.

(碑文所謂僉議政承臣怡等 卽匡定公金怡也 本集與圖經 皆作臣怡 考之 麗史 更無以怡爲名而官政承者 此碑臣怡之爲匡定無疑也 又按匡定以僉議 中贊 卒於泰定四年五月 則立碑時 尙無恙而居位也 匡定少時 宿華藏寺 夢 王御殿唱一句青雲紫氣知仙閣 匡定廣云綠髮清談是貴人 以是卜其貴顯 碑文에서 이른바 ‘僉議政承臣怡等’은 바로 匡定公 金怡이다. 本集 『益齋 亂藁』와 『高麗圖經』에는 모두 ‘臣怡’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사』를 상고 해 보면 ‘怡’이란 이름을 가지고 정승 벼슬을 한 자가 없으니, 이 비석에 적힌 ‘臣怡’는 광정공이란 것을 의심할 나위 없다. 또 상고해 보건대, 광 정공은 僉議中贊으로서 원나라 晉宗 때인 泰定 4년(1327) 5월에 죽었으 니, 이 비석을 세울 때에 아직 탈 없이 관직에 있었던 것이다. 광정공이 젊은 시절에 華藏寺에서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왕이 전각에 임어하여 시 한 구를 부르기를, “푸른 구름 붉은 기운이라 신선의 집임을 알겠노 라.(青雲紫氣知仙閣)” 하였고, 이에 대해 광정공이 화답하기를, “푸른 머

132) 內侍, 宦官이 아니라 고려시대 近侍 및 宿衛의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이다.

리 맑은 담론이라 바로 귀인이십니다.(綠髮清談是貴人)” 하였다. 이 시구로써 장차 광정공이 貴顯하게 될 것을 짐칠 수 있었다.)

更將誕辰補闕文 게다가 誕辰뒤의 빠진 글을 보완하다가  
每於各取異傳聞 每於와 各取로 다르게 전해 오를 알았네.

(碑文曰 爲皇太子皇子祈福 各取其誕辰 飯僧閱經歲以爲凡 麗史云 每於誕辰 飯僧歲以爲常 按每於字 語不了 不如各取字之爲詳備也 비문에, ‘황태자와 황자를 위해 복을 빌되, 각각 그들의 탄신일에 승려들에게 밥을 공양하고 불경을 열람하는 일을 해마다 상례로 삼으라.’하였다. 그런데 『고려사』에 ‘매양 탄신일마다 승려들에게 밥을 공양하는 일을 해마다 상례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다. 상고해보니 ‘매년에(每於)’는 말이 제대로 끝나지 않아서 ‘각각을 취한다(各取)’는 것이 상세한 것만 못하다.)

慶我吉金貞石福 나의 금석보물 행운을 기뻐하노니  
篆烟欲下金海君 전자(篆字) 연기 ‘金海君’字를 감싸네.

(碑第二行 推誠亮節功臣重大匡金海君臣李 此以下泐損 按先生始封金海君 後改封鷄林府院君 비의 제2행에는, ‘추성양절공신 중대광 김해군 신 이(推誠亮節功臣重大匡金海君臣李)’라는 말이 쓰여 있고, 그 이하는 마멸되었다. 상고해 보면, 선생은 처음에 김해군에 봉해졌다가 뒤에 鷄林府院君으로 고쳐 봉해졌다.)<sup>133)</sup>

<1>은 <문수원비>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고려국사 탄연선사의 독창적인 필법을 감정한 것이다. <2>에서 李暉(1297-1364)쓴<sup>134)</sup> <시장경

133) 申緯, 『警修堂全藁』, 『貂錄四(1819년 4월-6월)』, <余前入清平 拓取坦然文殊院碑 限於日晷 未能并拓後面祭眞樂公文 此亦坦然書也 兒子命準再入清平 并拓其前後面 又於千年古樹下廢池邊 掘得一碑 洗視之 乃李益齋先生所撰施藏經碑也 準精拓三本 此碑與文殊院碑 均爲山中之文獻 諄囑主僧松坡長老 移置藏經碑僧簷下 以庇風雨 石斷裂 大小凡五段云>, ‘碑文所謂僉議政承臣怡等 卽匡定公金怡也 本集與圖經 皆作臣怡 考之麗史 更無以怡爲名而官政承者 此碑臣怡之爲匡定無疑也 又按匡定以僉議中贊 卒於泰定四年五月 則立碑時 尙無恙而居位也 匡定少時 宿華藏寺 夢王御殿唱一句云青雲紫氣知仙閣 匡定賡云綠髮清談是貴人 以是卜其貴顯, 碑文曰 爲皇太子皇子祈福 各取其誕辰 飯僧閱經歲以爲凡 麗史云 每於誕辰 飯僧歲以爲常 按每於字 語不了 不如各取字之爲詳備也 碑第二行 推誠亮節功臣重大匡金海君臣李 此以下泐損 按先生始封金海君 後改封鷄林府院君’

134) 이현일, 「자하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14-215면.

비>는 고려 충숙왕 14년(1327) 원나라 황실에서 황태자와 황자의 복을 빌기 위해 불경을 시주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비문을 세우게 된 동기와 비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詩로 나타냈다. <3>은 비를 통해서 역사를 고증하고 기뻐하고 있다. 『益齋亂藁』와 『高麗圖經』에는 모두 僉議政丞의 이름이 ‘愔’으로 되어 있으나, 『고려사』를 점검해 본 결과 ‘愔’이란 이름을 가지고 정승 벼슬을 한 자가 없어, 碑文에서 이른바 ‘僉議政丞臣怡等’은 바로 匡定公 金怡라는 것을 고증하였다. 또 비문의 ‘各取其誕辰 飯僧閱經歲以爲凡’이 『고려사』의 ‘每於誕辰 飯僧歲以爲常’보다 문리가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이제현의 처음 봉호가 金海君이었다는 것을 고증하였다. 이처럼 신위는 학문축적을 통해 얻은 고증 성과를 ‘以學爲詩’, ‘以考據爲詩’의 창작방법으로 ‘考據博雅’한 시를 쓰고, 시의 산문화나 시 行間에 自注를 기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 신위는 1817년, 嘉靖·隆慶 연간의 玉佩를 고증하였다. <玉佩> 并序에서

柳惠風(柳得恭)의 『冷齋書種』에, “사방 한 치쯤 되는 옥돌 한 조각이 반투명한 우윳빛을 띠고 있었고 두 개의 螭首가 조각되어 있었는데, 한 면에는 山水·平橋·漁舟·遠塔을 새겨서 은은히 분별할 수 있고, 한 면에는 ‘푸른 잔디 흰 돌 하수가에 가득한데, 아득히 펼쳐진 모래펄 얇은 물결 띠고 있네. 붉은 나무 푸른 산 들어갈 길 없으니, 행춘교 가에서 고기 잡는 배를 찾노라.(綠莎白石滿河洲 渺渺平沙帶淺流 紅樹青山無路入 行春橋畔覓漁舟)’라는 시를 새겼고, ‘子剛’이란 작은 印文이 찍혀 있었다. 成川府에 사는 어떤 백성 하나가 밭을 갈다가 이 옥을 습득하여 부사에게 바쳤는데, 부사의 아들이 詩妓 一枝紅을 사랑하여 그 옥을 주어 차게 하였다. 뒤에 그 옥은 성천부의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었는데, 부사 아무개가 비싼 값을 주고 취하였다. 詩情과 畫意가 모두 극도로 그윽하여 깊은 맛이 있고 刻法 또한 신기하였다. 이 옥은 필시 중국의 물건일 것인데, 다만 자강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를 뿐이니 뒤에 조사해 봐야 하겠다.”하였다.

상고하건대, 成都의 어떤 백성 하나가 옛 무덤 사이를 개간하다가 이

옥을 습득하여 부사에게 바쳤는데, 그 옥은 드디어 일지홍에게 돌아갔고 일지홍은 다시 정표로 부잣집 사람 아무개에게 주었다. 뒤에 鄭府使가 이 옥을 취하여 총애하는 여자의 장식으로 삼았는데, 그 여자는 燕子樓에 거처하고 있었다. 10년 후에 그 여자는 이 옥을 팔아서 곤궁한 생활에 보태 썼으므로, 이 옥은 또 귀한 집의 요염한 여자에게로 돌아갔다. 이 옥은 흙 속에서 나온 뒤로 세 번이나 주인을 바꾸고 세 번이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으니, 재액을 동반하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한 골동품 애호가가 그 요염한 여자에게서 구매한 뒤로는 끝내 닳도록 그 손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다.

자강은 성이 陸氏이다. 명나라의 徐文長(徐渭)의 <水仙花> 시에서 이르기를,

略有風情陳妙常	약간 풍정이 있는 이는 진묘상이고
絕無煙火杜蘭香	전연 연화기가 없는 이는 두란향이네.
昆吾鋒盡終難似	곤오의 칼끝 다 닳아 닳게 새기기 어려우니
愁殺蘇州陸子剛	소주의 육자강을 시름에 빠지게 만드네.

하였다. 서문장은 스스로 주를 내기를, ‘육자강은 蘇州 사람으로 옥을 연마하는 妙手이다.’하였다. 이에 의거하면 육자강은 서문장과 같은 때 사람이니, 이 옥은 명나라 가정·융경 연간의 오래된 물건이라는 것을 의심할 나위가 없다.<sup>135)</sup>

135)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續筆(1817년 7월-12월)』, <玉佩 并序>, ‘柳惠風冷齋書種 曰方寸玉 一片羊脂色 雙螭首 一面刻山水 平橋漁舟遠塔 微微可辨 一面刻詩云 綠莎白石滿河洲 渺渺平沙帶淺流 紅樹青山無路入 行春橋畔覓漁舟 小印文曰子剛 成川府民 耕田拾得 獻于府使 府使之子 戀妓一枝紅 詩妓也 與之佩 後歸邑子某 府使某以重價取之 詩情畫意 俱極縹緲 刻法又神 必是中國物 但未知子剛之爲何代人 以待後查 柳說止此 余按成都民墾荒塚間 得此玉獻之官 遂歸於一枝紅 紅又情贈富民某甲 後鄭府使取爲寵姬之飾 姬居燕子樓者且十年 售玉以資衣食之窘 此玉又歸於侯門之絕豔 玉自出土來 凡三易主而三噪於世 盖尤物也 有一嗜古者購求於豔 豔竟刖敝 不出手云 子剛姓陸氏 徐文長水仙花詩云 畧有風情陳妙常 絕無煙火杜蘭香 昆吾鋒盡終難似 愁殺蘇州陸子剛 自注云 陸子剛 蘇人 碾玉妙手也 据此則子剛爲文長同時之人 而此玉爲明嘉隆間古物無疑也’

라고 하였다. 柳惠風(柳得恭)의 『冷齋書種』에, ‘成都의 어떤 백성 하나가 옛 무덤 사이를 개간하다가 이 옥을 습득하여 부사에게 바쳤는데, 이 옥돌에 ‘子剛’이란 작은 印文이 찍혀 있었다. 다만 자강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를 뿐이니 뒤에 조사해봐야 하겠다.’하였다. 신위가 명나라의 徐文長(徐渭)의 <水仙花> 시에, ‘육자강은 蘇州 사람으로 옥을 연마하는 妙手이다.’라는 서문장의 주를 근거하여 육자강은 서문장과 같은 때 사람이니, 이 옥이 명나라 가정·융경 연간의 오래된 물건이라는 것을 밝혔다. 곧 유득공이 이 옥의 연대를 밝히지 못한 것을 신위가 서위의 <수선화> 시에 있는 주를 근거하여 옥의 연대를 고증한 것이다. 이 시는 학문축적을 통해 얻은 고증 성과를 ‘考據博雅’한 文으로 시의 序에 기재하는 창작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1824년 崧陽人이 高麗金錄事 金慶祚의 <紀實碑><sup>136)</sup> 글을 구하였다. 김경조는 圃隱의 錄事이다. 다음 시 <崧陽人求書高麗金錄事 慶祚紀實碑 寫既訖 題後>의 并序에

고려 侍中 포은선생 文忠公 鄭夢周가 죽던 날에, 공의 錄事도 공과 함께 해를 당하였다. 지금 善竹橋에 <錄事碑>가 있는데, 속칭 <泣碑>라고 하며 그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史書에 이름이 전하지 않고

136) <金慶祚紀實碑>는 ‘高麗侍中圃隱鄭先生錄事珍島金公慶祚紀實碑’라고 쓰여 있다. 고려 충신 정몽주의 녹사인 金慶祚의 紀實碑이다. 김경조는 본관이 珍島이다. 순조대의 문신 李龍秀 撰, 申緯 書이다. 소재지는 경기도 개성군에 있다. 내용은 ‘1824년(순조 24)에 송도에 수령으로 나갔을 때 士人 金鼎九가 자신의 母黨 李氏家에 있는 古紙를 가져와 보여주었는데 『珍島金氏舊譜』였다. 그 중 慶祚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있었는데 高麗 恭愍王대의 侍中 九周의 아들로 정몽주와 함께 변을 당한 일이 자세히 실려있다. 舊譜가 1523년에 간행되었으므로 고려조로부터 그리 멀지 않고 기록된 일이 믿을 만하다. 충신·志士가 난을 당하여 지조를 지키며 충절을 다하여도 관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행적을 후세에 알기 어렵고 고관이나 사대부들도 변을 당하면 목숨을 바쳐 충절을 지키기 어려운데 그 충절이 가상하고 송양할 만하여 비를 세우고 기록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용수에게 구보를 보여준 鼎九는 김경조의 15대 방손이다.

비석에서도 고증할 수 없으니, 이것이 千古의 한이 되는 것이다. 근래에 崧陽 사람이 故家의 부서진 籠에서 좀먹은 서책 한 권을 발견하였는데, 『珍島金氏世譜』로서 嘉靖 계미년(1523, 중종18)에 간행한 것이었다. 그 족보에 이름이 나오고, 그 아래에 ‘慶祚宮 녹사인데, 정 문충공을 수행하였다가 해를 당하였다.’ 하였으며, 기사 내용이 매우 자세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金九이며 恭愍王朝의 시중이었다고 하였다. 송양의 人士들이 모두 그 족보의 내용을 德行을 기록한 사료라고 여기고, 드디어 옛날 비 옆에 비 하나를 세워 주었다. 비문의 글은 송도수령 子田 李龍秀가 撰하고, 글씨는 申緯가 썼다.<sup>137)</sup>

라고 하였다. <錄事碑>는 선죽교에 있다. 그동안 <녹사비>의 녹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는데, 녹사의 이름이 밝혀진 경위와 옛날 비 옆에 새로운 비 하나를 세우고, 비문의 글은 송도수령 子田 李龍秀가 撰하고, 글씨는 신위가 썼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其一

往史堪憑補缺空	지난 역사 의거해 이지러져 없는 것을 메우는데
徵公稱出譜家功	공을 증명해 드러낸 것은 家譜의 功이네.
可憐金侍中公子	가련타 金慶祚 侍中은
同日成仁鄭侍中	같은 날 정몽주 侍中과 仁을 이루었네.

其二

續錄崧緣去闕疑	「송연록」에 이어 보류해두었던 의문을 풀고
崧陽重結墨緣奇	송양에서 다시 기이한 묵연 맺었네.
新開善竹橋邊路	선죽교 길 옆에 비를 새로 세웠으니

137) 申緯, 『警修堂全藁』, 「花徑賸墨十(1824년 7월-9월)」, <崧陽人求書高麗金錄事慶祚紀實碑寫既訖題後二首并序>, ‘高麗侍中圃隱先生鄭文忠公夢周成仁之日公之錄事同公遇害今善竹橋有錄事碑俗稱泣碑者紀其事然史失名碑亦無徵此爲千古可恨近崧陽人從故家敗籠發一蠹簡乃珍島金氏世譜嘉靖癸未開雕者譜有名曰慶祚官錄事從鄭文忠遇害書之甚悉其父曰九周恭愍朝侍中也崧之人士咸以譜爲悼史遂乞文於留守李子田乞書於余立一碑舊碑傍從此錄事姓名可與文忠共蔽天壤亦曠世奇事也’

披草人看第二碑 우거진 풀숲에서 두 개의 비석 보리라.  
(余舊有崧緣錄 내가 전에 「송연록」을 지었다.)

위 시는 并序의 내용을 시화한 것으로, 其一은 『珍島金氏世譜』의 거해 녹사의 이름이 金慶祚로 밝혀졌다는 것이고, 其二는 옛날 비 옆에 새로운 비 하나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 시는 ‘以學爲詩’, ‘以考據爲詩’의 창작 방법으로 <녹사비>를 고증하고 있다.

그 외 신위는 顧炎武의 『日知錄』을 근거로 毛延壽의 일을 고증하였다.<sup>138)</sup> 청나라 고염무는 『西京逸史』를 더듬어서 모연수가 그림을 잘못 그린 일(왕소군은 뇌물을 바치지 않아 화공 모연수가 그의 초상을 좋지 않게 그림으로써 끝내 원제의 사랑을 받아 보지 못했다는 일)이 이미 흥노가 미인을 요구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임을 밝혔다.

또 <猗蘭操><sup>139)</sup> 서첩과 <異石甘露> 서첩의 차이에 대하여 고찰하였

138) 申緯, 『警修堂全藁』, 『蘇齋續筆(1817년 7월-12월)』, <毛延壽 并序>, ‘顧寧人日知錄 書毛延壽事 引西京雜記以證之曰 據此則畫工之圖後宮 乃平日而非匈奴求美人時 且毛延壽特衆中之一人 又其得罪以受賂 而不獨以昭君也 後來詩人謂匈奴求美人 乃使畫工圖形 而又但指毛延壽一人 且沒其受賂事 失之矣 其說精密可喜 以詩記之 (<毛延壽> 并序에서 청나라 顧寧人 顧炎武는 그의 《日知錄》에서 毛延壽의 일을 적을 때 《西京雜記》를 끌어다가 증명하였다. 이에 의거하면, 한나라의 법에 畫工이 후궁을 그려서 바치면 임금은 그 그림을 보고 불러다가 가까이하였던 것이니, 王昭君을 그린 것은 흥노가 미인을 요구할 때 그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의 화공들 가운데는 모연수·유백(劉白)·공관(龔寬)·진창(陳敞)·번육(樊育)·양망(陽望) 등이 있었으니, 모연수는 그들 중 한 사람이다. 또 뇌물을 받고 죄를 얻은 것은 유독 왕소군 때문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후에 詩人은 ‘뇌물 받은 일이 흥노가 미인을 요구할 때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화공으로 하여 그림을 그리도록 한 것이 어찌 단지 모연수 한 사람만 지적할리 있었겠는가. 또 뇌물을 받고 죄를 얻은 일은 너무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 설이 정밀하다 할만하다. 시로써 기록한다.)

139) ‘猗蘭操’는 공자가 지었다는 琴의 曲인 ‘猗蘭操’이다. 춘추 시대 제후들을 두루 찾아갔으나 아무도 자신을 등용해 주는 이가 없어 衛나라로부터 魯나라로 돌아오던 공자가 깊은 골짜기에 향기로운 난초가 무성히 피어 있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기를, “난초는 의당 王者를 위해 향기를 피워야 할 터이거늘, 지금 홀로 무성하여 못 풀들과 함께 섞여 있구나.” 하고는 수레를 멈추고

고,<sup>140)</sup> 海居都尉 洪顯周가 <淳化閣帖><sup>141)</sup> 두 본을 보냈는데, 하나는 왕저가 모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肅藩本이다. 신위는 왕저의 모각본을 가짜라고 감정하였으며,<sup>142)</sup> 어떤 사람이 倪雲林, 吳匏菴의 題跋이 있는 趙大年의 <著色山水橫卷>을 가져와 보였는데, 신위는 書와 畫가 모두 가짜 본이라고 감정하였다.<sup>143)</sup>

또한 신위가 蘇東坡의 逸詩를 얻어 翁方綱의 『蘇詩補注』를 덧 붙여 고증하고,<sup>144)</sup> <天際烏雲帖>은 소식이 濰州에서 쓴 것으로 이는 바로 熙寧 9년인 병진년(1076) 겨울임을 고증하였다.<sup>145)</sup>

琴을 연주하여, 때를 잘 만나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상심하는 마음을 난초에 가탁하였다. 『樂府詩集 琴曲歌辭二 蘭操』

- 140) 申緯, 『警修堂全藁』, 『崧緣錄(1819년 9월)』, <閔尹聖揆 宅烈 傳家書畫 作長句記之>, <附 猗蘭操, 異石甘露二帖同異考>
- 141) <淳化閣帖>은 중국 宋나라 992년(태종 淳化3)에, 內府에 소장되어 있던 역대 명필가의 문장을 골라내어 순화각에 모아 놓고 翰林侍書 王著에게 명하여 새기게 한 法帖 10권이다.
- 142) 申緯, 『警修堂全藁』, 『養硯山房四(1832년 윤9월-10월)』, <海居送示閣帖兩本 一是王著摹 一是肅藩本也 要余審定優劣 故答以一詩>, ‘所示兩本 適皆月半黃甘二帖也 余答書曰 準此二帖 肅本則線來絲去 饒有活機 王著摹 蠅蠅蠅 都無血氣 卽此可以審正優劣 况贗王著 曷若眞肅藩耶’
- 143) 申緯, 『警修堂全藁』, 『覆瓿集七(1841년 6월-1841년 9월)』, <有人携示趙大年著色山水橫卷 後有倪雲林, 吳匏菴題跋 書與畫皆贗本也 聞是昔日富貴家珍藏 歎題一詩>
- 144) 申緯, 『警修堂全藁』, 『碧蘆舫藁一(1819년 9월-1819년 12월)』, <題東坡逸詩後并序>, ‘天際烏雲帖云 僕在錢塘 一日謁陳述古 邀余飲堂前小閣中 壁上小書一絕 君謨陳跡也 約綽新嬌生眼底 侵尋舊事上眉尖 問君別後愁多少 得似春潮夜夜添 又有人和云 長垂玉筋殘粧臉 肯與金釵露指尖 萬斛閒愁何日盡 一分眞態更難添 二詩皆可觀 後詩不知誰作也 查初白蘆詩補注 則以爲過濰州驛 見蔡君謨 一本無此四字 題詩壁上云 綽約新嬌生眼底 逡巡 一本作優柔 舊事上眉尖 春來試問愁多少 得似春潮夜夜添 不知爲誰而作也 和一首 長垂玉筋殘粧臉 肯與金釵露指尖 萬斛閒愁何日盡 一分眞態更難添 又有贈青濰將謝承制七律一首 初白有按說曰 以上二首 諸刻本皆不載 據外集第五卷 自密州移徐州時作 今采錄云云 余喜得公逸詩 遂爲詩而記之’
- 145) 申緯, 『警修堂全藁』, 『碧蘆舫藁一(1819년 9월-1819년 12월)』, <題東坡逸詩後并序>, ‘天際烏雲帖 公滯雪濰州時所寫者 案熙寧九年丙辰除夕也’

이상에서 신위의 고증적 성향의 시를 살펴보았다. 신위는 옹방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고증학 활동이나 성과를 시로 창작하는 소위 ‘以學爲詩’, ‘以考據爲詩’의 창작방법을 쓰고 있으며, 시 行間에 自注를 기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신위의 시에서 나타나는 ‘考據博雅’한 고증적 성향은 1812년 청나라 연행 이후로 금석학의 대가인 옹방강과 옹수곤 그리고 섭지선 등과의 교류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신위의 ‘考據博雅’한 고증적 성향은 청나라 연행 이후 전개될 그의 시뿐만 아니라 학문·서·화·古董遺物 등에 이르기까지 학술문에 전반에 걸쳐 그 바탕을 형성하게 된다.

## 4. 결론

신위의 시에서 나타나는 ‘考據博雅’한 고증적 성향은 1812년 청나라 연행 이후로 금석학의 대가인 옹방강과 옹수곤 그리고 섭지선 등과의 교류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먼저 신위의 연행에서 옹방강을 비롯한 청조인사들과의 교류와 연행 이후의 교류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그리고 청나라 연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으로 고증적 성향의 시를 살펴보았다.

옹방강은 시의 고증적 효용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고증학 활동이나 성과를 시로 창작하는 소위 ‘以學爲詩’, ‘以考據爲詩’의 창작방법을 수립했으며, ‘고증하는 일과 시 쓰는 일이 두 가지가 아니다.’고 하여 고증학과 시문학의 일치를 추구했다. 학문을 시문학의 한 요소로 중시한 청대시단의 일반적 흐름에서 학문과 고증을 시문학에 가장 직접적으로 일치시켰던 것이다.

신위는 ‘조선후기 四家’에 의해 비롯된 청대 시 수용을 계승하였으며, 청나라에 가서 옹방강을 만나고 돌아와 옹방강의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以學爲詩’, ‘以考據爲詩’로 칭해지는 옹방강의 고증적 성향의 시를 수용하게 된다. 옹방강의 영향을 받은 신위 또한 ‘以學爲詩’, ‘以考據爲詩’의 창작방법으로 ‘考據博雅’한 시를 썼으며, 시의 산문화나 시 行間에 自注를 기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식의 특성은 ‘詩言志’나 ‘詩緣情’으로 정의되어온 전통적 시의 경계를 넘어선 것으로 시의 경계를 확대시켰으며, 또한 작가 스스로가 箋注家가 되어 자주를 기재함으로써 자신의 사적 생활도 자유롭게 典故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옹방강은 소식을 스승이라 칭하고, 신위는 옹방강의 제자라고 하였다는데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옹방강의 고증적 성향의 시를 이어받은 신위는 조선후기 고증적 성향의 시를 주도하였다. 옹방강을 만났을 당시 신위는 44세로 학문적 숙성기에 있었으므로 옹방강의 학문을 받아들이는 역량은 매우 깊었을 것이며, 실제 창작량에 있어서도 청나라 연행 이전의 『분여록』494수를 제외하고도 연행 이후에 역은 『경수당전고』에는 4069수가 실려 있는데 그 중 상당수의 시가 고증적 성향의 시라는 점에서 신위가 조선후기 고증적 성향의 시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위의 ‘考據博雅’한 고증적 성향은 청나라 연행이후 전개될 그의 시뿐만 아니라 학문·서·화·古董遺物 등에 이르기까지 학술문에 전반에 걸쳐 그 바탕을 형성하게 된다.

## 참고문헌

- 申緯 『警修堂全藁』, 한국문집총간 291.
- 金祖淳 『楓臯集』, 한국문집총간 289.
- 金正喜 『阮堂集』, 한국문집총간 301.
-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한국문집총간 2.
- 李裕元 『嘉梧藁略』, 한국문집총간 315-316.
- 李裕元 『임하필기』제4, 33, 34권, 민족문화추진회, 1979.
- 韓致瀛 『海東繹史』제46권, 민족문화추진회, 1979.
- 金澤榮 『申紫霞詩集』, 中國 江蘇 南通州 翰墨林, 1907.
- 翁方綱 『復初齋文集』卷4, 20, 30, 68, 廣文書局, 1982.
- 趙爾巽 主編, 『清史稿』卷四八七, 中華書局, 1977.
- 杜甫, 『補注杜詩』, 卷十四, 欽定四庫全書,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0,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DB,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8책 32  
면, 42면
- 金澤榮 著, 金承龍 편역주, 『송도 인물지』, 현대실학사, 2000년, 215-217  
면.
- 신일권 역주, 신위 著, 『紫霞墨藁』, 도서출판 다운샘, 2011.
- 孫八洲, 『申緯全集』, 태학사, 1983, 257-296, 297면 참조.
- 孫八洲, 「申緯詩文學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18, 269면.
- 孫八洲, 『申緯와 蘇軾』,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1997.
- 이현일, 「자하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7, 214, 215  
면.
- 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一志社, 1996, 516, 517, 518면,  
李鍾燦 編譯, 『서예란 무엇인가』, 梨花文化出版社, 1998, 146, 147면,  
車柱環 『中國詩論』,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273-366면.  
車相軾, 『中國古典文學評論史』, 汎學圖書, 1975, 547-582면.

- 張葆全 主編, 『中國古代詩話詞話辭典』,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2, 177면.
- 安大會, 『朝鮮後期 詩話史 研究』, 국학자료원, 1995. 155-168면 참조.
-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16: 문벌정치가 나라를 흔들다』, 한길사, 2003, 317면.
- 藤塚鄰 著, 박희영 역, 『추사 김정희의 또 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94, 103, 186, 245면.
- 藤塚鄰 著, 윤철규 외 옮김, 『추사 김정희연구』, 과천문화원, 2009, 140, 154, 280-281면 참조.
- 최완수, 「추사와 그 학파」, 『간송문화』60,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1, 96-97면.
- 이철희, 「秋史 金正喜의 詩論研究-중국시론의 수용과 조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2-151면 참조.
- 이철희, 「秋史 金正喜의 시문학에 나타난 고증학의 영향」, 한국시가연구 제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255, 256, 259, 260면 참고.
- 琴知雅, 「翁方綱의 詩學과 學術詩」, 『중국어학논집』48, 2008, 336-340면 참조.
- 李銀赫, 「秋史 金正喜의 詩論研究-清朝 詩學과 관련하여-」, 한국사상문학회, 1999, 92면.
- 李庚秀, 「秋史 金正喜의 清代詩 受容」, 한국한시학회, 1998, 256, 258, 271, 272면.
- 李庚秀, 『漢詩四家の 清代詩 受容研究』, 태학사, 1995. 188면.
- 신일권, 「紫霞 申緯의 題畫詩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55-62면.
- 김혜숙, 「秋史와 紫霞의 文學적 交遊와 그 影響」, 『대동문화연구』제2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91, 130, 133, 134-166면.
- 차길선, 「자하 신위의 시문학론 소고」,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39면.

朴徹宰, 「秋史 金正喜의 金石學 研究-歷史考證的 側面을 中心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2010, 11면.

김춘희, 「秋史 金正喜의 書畫로 본 藝術世界」,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1면.

劉長鏞, 「秋史 金正喜의 書畫思想과 韓國 文人畫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58면.



<Abstract>

Characteristics of Shin Wi's Poetry  
After His Journey to Beijing in the Qing  
Dynasty as an Envoy  
- Focused on a Style of Gojeung, the Historical  
Research -

Shin, Il-Kwon\*

Shin Wi(申緯, 1769-1847) started to write poetry with a style of Gojeung, historical research after he returned from a journey to Beijing in the Qing Dynasty as a diplomatic envoy in 1812. In this regard, this study delved into what he exchanged in Beijing with Weng Fanggang(翁方綱, 1733-1818) and other intellectuals in the Qing Dynasty.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poetry with a style based on Gojeung, featured in Shin Wi's poetry after his journey to Beijing in the Qing Dynasty as an envoy.

Shin Wi inherited the poetic style of the Qing Dynasty that had been adopted by “four masters of poetry(四家) in the late Joseon Dynasty”. He started to grow deep interests into the scholarship pursued by Weng Fanggang after the encounter with Weng in Qing and adopted Weng's poetic style of Gojeung, which is called “Ihakwisi(以學爲詩)”, that academic contents are demonstrated in poetry, and “Igoeowisi(以考據爲詩)”, that a poetic style of Gojeung, the historical research, is exposed in poetry. Influenced by Weng, Shin

---

\* Lecturer, Department of Classic Chinese of Busan University

Wi wrote his poetry using the method of “Thakwisi(以學爲詩)” and “Igoeowisi(以考據爲詩)”, that showed the features to turn poetry into prose or annotate the lines. Such characteristics in the forms of poetry expanded the boundary of the literature, exceeding the limit of conventional poems that had been defined as “Sieonji(詩言志)”, that poetry is the expression of the earnest thought, or “Siyeonjeong(詩緣情)”, that poetry traces emotions. They also implied that author’s personal life can be used as an authentic precedent as the author annotates the poem and becomes an annotator(箋注家) himself.

Among his poetry, there are 4069 poems in the compilation book, “Gyeonsudangeongo” that was compiled after his journey to Beijing. As a large number of the poetry is in a style based on Gojeung, it is assumed that Shin Wi led the poetic style based on Gojeung, historical research in the late Joseon Dynasty.

Such poetic style forms the foundation of not just his own poetry written after the journey to the Qing Dynasty but also the overall scholarship and literature from studies to calligraphy to painting and to antiques.

Key Words : Journey to Beijing as Envoy, Weng Fanggang,  
Exchange with Intellectuals in the Qing Dynasty,  
Gojeung, Historical Research, ‘Thakwisi(以學爲詩)’,  
‘Igoeowisi(以考據爲詩)’

■ 논문접수 : 2013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3년 7월 20일  
■ 게재 확정 : 2013년 8월 5일